

第258回國會  
(臨時會)

#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2月14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3.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
4. 업무현황보고
  - 가. 문화관광부
  - 나. 문화재청

## 審査된案件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혜숙 · 김재홍 · 민병두 · 손봉숙 · 안민석 · 이광철 · 정종복 · 정청래 · 강창일 · 김명주 · 김선미 · 김태홍 · 노현송 · 박재완 · 백원우 · 안상수 · 엄호성 · 이인기 · 이인영 · 이해봉 · 정진석 · 홍미영 · 이원영 · 윤원호 · 이미경 · 이재웅 · 천영세 · 정성호 의원 발의) ..... 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 · 배일도 · 윤건영 · 이성구 · 박찬숙 · 정화원 · 유기준 · 엄호성 · 정진섭 · 남경필 · 박재완 · 임해규 의원 발의) ..... 1
3.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김재경 · 김재원 · 유정복 · 안상수 · 엄호성 · 이해훈 · 이근식 · 이균현 · 김문수 · 박계동 의원 발의) ..... 1
4. 업무현황보고 ..... 4
  - 가. 문화관광부
  - 나. 문화재청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심의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이어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현황보고를 각각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혜숙 · 김재홍 · 민병두 · 손봉숙 · 안민석 · 이광철 · 정종복 · 정청래 · 강창일 · 김명주 · 김선미 · 김태홍 · 노현송 · 박재완 · 백원우 · 안상수 · 엄호성 · 이인기 · 이인

영 · 이해봉 · 정진석 · 홍미영 · 이원영 · 윤원호 · 이미경 · 이재웅 · 천영세 · 정성호 의원 발의)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 · 배일도 · 윤건영 · 이성구 · 박찬숙 · 정화원 · 유기준 · 엄호성 · 정진섭 · 남경필 · 박재완 · 임해규 의원 발의)

3.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김재경 · 김재원 · 유정복 · 안상수 · 엄호성 · 이해훈 · 이근식 · 이균현 · 김문수 · 박계동 의원 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부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연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설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 등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현행 ‘관할소방서장’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공연장 운영자 등의 재해대처계획 신고기관과 지도·감독기관을 일치시키며,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있는바, 공연장에서의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중이 관람하는 공연장 등에 응급구조장비와 응급치료인력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공연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종사자 배치, 구급차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연장 등에서의 관객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응급의료 제공 의무화는 공연장 운영자

들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여 공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나 임시적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연장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구급차 등을 고정 배치하도록 할 경우 한정된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구조상 응급의료가 더욱 필요한 곳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연장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의무화는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안전제도의 구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조사·개척과 정보수집, 국내 영화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한국영화 박람회 개최사업 등 한국영화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으로, 최근 한국영화의 경쟁력 향상 및 제작비의 증가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 계속적인 한류 확산 및 유지의 필요성,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결정에 따른 한국영화의 침체 우려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로서 영화 수출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를 설립할 경우 동 공사의 해외 수출진흥 부문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내 진흥 부문 등 영화진흥 부문이 이원화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내 진흥 부문도 필수적으로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공사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는데,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우선 김재운 의원님께서 내신 안을 보면, 이 신고를 관할소방서장에게 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표현하신 대로, 구청의 경우에는 소방서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을 구청을 통해서 가도록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명옥 의원이 내신 안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에 상시적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또는 구급차를 배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이시설 또는 연락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오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영화 수출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이원화 문제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점차 이와 같은 수출업무를 배급회사 또는 영화하는 회사들이 민영화, 즉 민간 부문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또 공사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부담 또는 비효율성,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김재운 의원님의 공연법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양 기관의 협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단체하고 소방서하고 어떻게 협조가 될 것이냐인데, 만일 임시공연을 할 경우 이 계획이 미흡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인 소방서

쪽의 의견을 참조해야 되는 것인지, 소방서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혹시 그에 따라서 임시공연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공연법 개정안을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이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진흥팀은 인력이 10명 이내로, 적은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시장이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고쳐야 할 점입니다만,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를 새로이 만들 경우 적어도 30~40명 정도의 상근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소요 예산도 5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진흥팀과 새로이 만들어질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의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차라리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를 만들 때 드는 예산을 기존의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진흥팀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제 대체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위해서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법안심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4. 업무현황보고

##### 가. 문화관광부

##### 나. 문화재청

(10시21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각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오늘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영화가 매우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왕의 남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냥 일상적인 제작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관람했다 하는 거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되어서 지금 영화인들의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에서 ‘장관님이 업무현황보고를 할 때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땀다는 기쁜 소식이 있고, 또 문화부에서 인사가 새롭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기관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한 후에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존경하는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문화관광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문화관광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부는 올해 계층·지역·장르 간에 문화 양극화 극복과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체육 등 각 분야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게 하는 시책들을 펼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예술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예술정책들을 민간주도·현장중심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핵심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투자·유통 환경을 개선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한류 현상과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 중인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서로간에 문화적·정서적 접근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그들과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미디어를 비롯한 대안매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문공동배달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매체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하는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사업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해 가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부로 이관된 장애인체육 업무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 여가시간의 필요,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 주요 간부와 소속 기관장, 그리고 유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양우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이보경 중무실장입니다.

이성원 문화정책국장입니다.

위옥환 예술국장입니다.

백익 문화미디어국장입니다.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조현재 체육국장입니다.  
 조창희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추진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송용환 예술원사무국장입니다.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입니다.  
 이상규 신임 국립국어원 원장입니다.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신선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입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입니다.  
 김철호 국립국악원 원장입니다.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인사)

다음은 유관 기관장입니다.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입니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입니다.  
 최현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재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최경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유관 기관장 인사)

금년도 우리 부 주요 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과 7건의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스크린쿼터, 마지막으로 입법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연혁, 임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1차관보 2실 6국 1단, 9개 소속기관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원입니다.

본부 438명을 포함해서 총 189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과제는 지난해에 이미 충분히 얘기되었던 것이니까 현안사항과 입법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이재웅 위원 추진과제의 경우 이미 얘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면 현안하고 입법계획만……

○위원장 이미경 입법계획이 따로 정리되어 있군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마지막에 입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진과제의 경우 제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위원장 이미경 그렇게 하지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추진과제의 경우 크게 제목 중심으로 하고 현안사항과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도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지원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생적인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광주, 경주, 전주, 부산 등에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서관 등 시설들을 확대시키고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방문예회관의 공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문화 중심의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판의 글꼴이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여러 가지 도시경관에 대한 문화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권이나 주소판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이미지·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및 신탁법인 설립 등 우리 국민들이 문화유산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전면 광장 조성 등 국민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서 왜 장애인들은 소외계층에서 빠져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장애인들도 내용에 들어 있고요, 체육은 별도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장애인이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프로그램 내용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봉숙 위원** 그 프로그램 나중에 좀 보내 주세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기초예술을 진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여러 가지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장과 연계되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공연전문 투자조합 설립 등 예술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협력시스템, 법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접대비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도 관

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창작·유통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장르별 전략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명동예술극장 등 공연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악기 개량 등 전통예술을 현대화하고 생활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디자인미술관을 디자인문화원으로 전환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각예술의 다변화 및 경쟁력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트마켓 참가자 규모 확대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예술을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넘어가기 전에 공연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세부자료들을 좀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과제로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확산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별히 반 한류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주요과제로 두고 이를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별히 쌍방향 문화교류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올해로 3회인 Asia Song Festival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저작권진흥센터를 설립해서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국제적인 게임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또 투자수출상담회,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해외 마케팅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 브랜드 세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 행정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LA·동경·뉴욕·파리 문화원을 특화 운영시키고 문화권별로 전략거점의 문화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4개 문화원을 신설하고 국정홍보처에서 이관되는 북경문화원을 올해 문화관광센터로 전환하고, 베를린, 모스크바, 오사카는 내년도 이후 문화관광센터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BRICs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RICs 국가별로 특화된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특히 영화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인도, 그다음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문화행사 등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를 집중 지원하고 전략적인 문화교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기존 4개 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추이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문화산업 핵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와 디지털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산업 투자·유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중기청 모태펀드 내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마련해서 문산기금 500억을 출자하는 등 모태펀드를 신설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유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음악데이터뱅크를 통한 온라인음악 유통 지원 강화 등 문화콘텐츠 유통환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가 조성되도록 여러 가지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확대 등 조치를 취하고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핵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CT대학원을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차세대 문화기술인 CT의 전략적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질 텔레비전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창작소재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맞는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문화콘텐츠 창작 인프라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 및 균형 발전도 지원하겠습니다.

신문발전기금 등 지원으로 신문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산업성과 공익성을 갖춘 미디어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진과제로 한국관광의 도약입니다.

태안, 무주 등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또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90만 이상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 관광진흥협의회 정례회 등 한·중 양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해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조금 더 빨리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중국 내 관광거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별·시장별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도록 지속 가능한 정주형 관광자원 그리고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형 중저가 호텔 브랜드 개발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U-TRAVEL 종합안내체계 등 여러 가지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콘텐츠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해외 홍보 및 국제 관광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ST-EP 재단을 통해서 저개발국 관광 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남북 공동 문화·관광 자원 조사 등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레저스포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제도화 등을 통해서 국민생활체육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생·청소년 체육활동의 범정부적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하고, 특별히 균형 배치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 교류 증대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수 육성기반 강화 및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특별히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 강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 진흥입니다.

저희 부로 이관된 장애인 체육 추진체계를 더욱더 정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여가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산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진흥 추진기반도 구축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지원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골프장 확충 및 태권도공원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와 그동안 장애인 쪽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의 건전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종교 연합활동 및 종교연합단체 활동 지원 등 종교 간의 화합 증진 및 종교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및 안내 정보체계 구축, 또 종교문화자원의 현대적 계승사업 등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사업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스크린쿼터 조정 및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년도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스크린쿼터 조정이 확정됐고, 재경부장관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으며, 그다음 날 27일 문광부장관께서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조정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행 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즉 146일이 의무상영일수이고, 연간 최대 40일까지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연간 상영일수는 106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연간 상영일수 5분의 1, 즉 73일로 조정되었고, 의무상영일수 단축규정은 없애도록 했습니다.

영화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산업 지원방안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원 구축을 위해서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억 원을 국고에서 출연하되, 내년과 내후년에 1000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영화상영관 입장료의 5%를 모금해서 약 2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국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입니다.

우선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 등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예술영화 제작·배급·상영환경 개선 등 한국영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일단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해외 진출 전략센터 운영 등 해외 진출 강화하는 사업에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디지털시네마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영화 현장인력 처우 개선 및 고급 기술인력 지원



양성체계 구축 등에도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기초안은 그동안 영화인들과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마는 향후 국회, 그다음에 영화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향교재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5개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상품권 유통 개선책에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내실화, 성인용게임 인증칩 부착,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영화발전기금 4000억을 신설하고, 입장료 5%를 모금해서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건지 그 관련 내용을 날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윤원호 위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005년도 지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지금 스크린쿼터 조정과 관련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마 정동채 장관께서도 입장 표명을 하셨을 텐데 그 정확한 발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8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한국영화가 이렇게 중흥기를 맞이한 것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세칭 가위질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JSA'도 만들어질 수 있었고, '웰컴 투 동막골'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영화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진전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었다라는 영화인들의 주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영화가 이렇게 1000만을 돌파하는 성공한 작품들이 속속 출연하는 것이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요인이 저는 스크린쿼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영화에 대한 보호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멕시코의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스크린쿼터를 폐지했다가 멕시코영화 제작편 수가 50편에서 10편도 못 되는 상황으로 줄게 되고, 다시 스크린쿼터를 부활시켰습니다만 멕시코영화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영화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서 방금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확대라는 정부정책기조, 그리고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 등으로 쿼터를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 일각에서 영화인들의 지나친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영화인들은 '맛다. 우리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미국의 문화적 지배로부터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 과정 속에서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회, 영화인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절반을 뚝 잘라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버리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1월 17일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보니까 2000억 원은 입장료에서 5% 부과하는 것이고, 2000억 원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고유권한 속에서의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5% 기금 모금은 영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00억은 이제……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4000억 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영화 입장료 중에 5% 부과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을 국회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에, 그 절차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인들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에 부의금 많이 준다고 해서 상주들 마음에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영화인들과 진지하게 정부의 고충, 어떤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불가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고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 영역, 자주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가 있어서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문화관광부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법이 통과되고 미디어 관련 기구가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법안을 낼 때 이런 사항이 우려됐기 때문에 언론진흥원으로 하자, 법정기구로 하자 해서 제가 제정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러한 4개의 기구가 중복성도 있고, 영역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기구 개편을 문광부에

서 2008년까지 하겠다, 한번 해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당겨서 조기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부는 지난해에 진흥원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기타 언론단체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때 당시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단체나 학계에서 통합에 관련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중에 대강 의견이 모아져서 금년 하반기에는 통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보면 예산을 끌어다가 결국은 융자사업 하는 데 다 예산 배정을 하고 나머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기금운용도 지금 실제로 신문 발전이라든가 그 성격에 맞도록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을 맡을 운영기관, 금융기관마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애써서 따 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것 같지만 지나지 않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야 간사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주장해서 후진타오 주석과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했던 CKCG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묵인 아래 이미경 위원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정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문화관광부에 문의해 보니까 ‘대통령 관련 행사가 아니다’라는 허위 답변을 문화관광부 직원 누군가가 했습니다. 지금 색출 중에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지시하고 이런 사항을 문화관광부의 직원들이 이렇게 허위 거짓 보고를 해서 예산 배정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좀 점검하겠습니다.

다.

○정청래 위원 스크린쿼터 부분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니까 장관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장관님, 지난 2005년 10월 20일 문화다양성협약, 즉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유네스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하고 4개국이 기권을 하고 148개국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통해서 통과된 내용을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대한민국도 찬성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협약 체결과정에서 스크린쿼터는 문화 주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문화정책 사례로 환영을 받았고 협약 체결에 있어 사실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도를 칭송하고 있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도 문화 주권과 문화 다양성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곧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찬성을 해 놓고 우리 국민과 미국 앞에서는 그 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문화다양성협약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가의 자주외교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본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국 굴욕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썰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연말에 예결위에서도 스크린쿼터제도를 FTA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연계하지 않는 것

이 그때 당시까지의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상황 변화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금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는 2004년 말까지 92일과 독립예술영화 14일 정도 해서 106일 정도의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제부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FTA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저희 부의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논의과정에서 문광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으면 문광위원회나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 계속 정부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관광부와 문광위원회는 모든 정책적인 입장에서 상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기능도 있지만 협조기능도 있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하고 안 하고가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절차상에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분명히 문화관광부 소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업무는……

○정병국 위원 문화관광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발표는 재경부장관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통상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정병국 위원 FTA를 체결하는 데 전제조건이 스크린쿼터제도이고 그 협상의 주체는 재경부장관일지 모르지만 재경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정부가 별개의 정부입니까? 그러면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동안 논의를 했고 저희들은 스크린쿼터의 축소 불가 입장 그리고……

○정병국 위원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문

화관광부의……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뭐 하십니까?

○정병국 위원 제 얘기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장관 홀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화인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이런 정부의 고충을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부의 고충을 문광위원회에서 털어놓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레놓고 그 최종적인 결과도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뒷전에 물러앉아 있고 재경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국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장관은 해당 상임위나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앞에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뒤통수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 한 대, 핸드폰 하나 더 파는 것이, 반도체 칩 하나 더 파는 것이 영화산업을 축소시키면서, 포기하면서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당장은 핸드폰 하나 더 팔고 자동차 하나 더 파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 미래 성장산업의 동력으로서 문화산업 기반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고 이런 것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책임을 회피했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놓고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자마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영화진흥정책을 발표했습니

다. 그것도 조금 전에 정청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국회와 논의해야 될 사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이미 문예진흥기금을 걷는 과정에서 엄연하게 위헌적 판결을 내린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과연 조령모개식의 정부정책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고 무슨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나라를 살려 갈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 내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그런 시장에 비교하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FTA 전제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광위원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따지를 건다거나 발목을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뒷받침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협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국민을 팔고 국회를 팔고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도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인지, 왜 그런 전략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광위원회에서는 이미 영화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스크린쿼터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모범에 규정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국회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과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결론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다소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정부가 FTA를 체결하기로 정해진 마당에……

○정병국 위원 그러면 미국이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지 않으면 FTA 협상 자체도 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73일의 발표가 있지 않은 이상은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병국 위원 미국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서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해 줬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통상본부장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 앞에 문서로 가져와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제가 장관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을 담당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틀릴 수 있고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도 국익을 전제로 접근하면서 그래도 문화산업을, 영화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본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문서로 이것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 민속박물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으로 우리 국민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갖지만 또한 우리의 열악한 박물관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든 생활양식이고 기층문화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속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복원 정비계획에 의하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2009년까지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4000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철거해야 되는 민속박물관이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이전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인력도 없는 것이 민속박물관의 현실입니다. 올해 민속박물관 예산에도 이전 건립 추진과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민속박물관이 2009년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민족역사공원 내에 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민속박물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 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강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역사성과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도시와 호흡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용산 고유의 경관과 장소성을 한국적 미와 정체성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민속박물관이 한 해에 300만 명이나 관람객이 드는 아주 인기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외국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전국 57개 생활사

박물관과 협력망을 구축했고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국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문화교육사업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센터로서 걸맞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속박물관은 관장님이 2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밑에 4급 과장체제로 이루어지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학예연구실 사무국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민속문화에 대한 발굴이나 조사·수집 등의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통합·조정 역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대표적인 생활사박물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중장기적 발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장의 직급을 1급으로 올리고, 조직 운영을 적어도 1실 1국 체제를 갖추어서 연구·관리 기능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민속박물관을 얼마 전에 방문해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직급의 조정 문제, 학예연구실의 증원 문제 등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같은 데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문제를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다양성협약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에 외교문화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다양성협약에 대한 철학과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국내 정부 부처 간에도 보면,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나 건교부, 주택공사 등과 협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지킴으로써 성불평등과 보육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생태 보존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대통령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선언을 이끌어낸 바도 있고, 최근에는 전략적 환경평가제도에서 각 부처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조치를 관철한 바도 있습니다.

부처와 장관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커다란 싸움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 편수가 1년에 80여 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10편도 안 되고 1000만 기록을 세운 것은 3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기 전에는 제작자도 감독도 1000만 명 기록을 세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이런 영화들이 극장에 걸릴 기회조차 박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영화가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1년에 한두 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경쟁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리끼리 비교를 합니다. 한류의 영향과 국제영화제에서 몇 편 수출되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비교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비해서 22배나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2배나 덩치가 큰 상대와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인큐베이터 속에서 영화를 좀더 키워야 됩니다.

현재 영화시장의 85%를 미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는 94% 자국 영화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제작 편수가 우리나라는 80편인데 미국은 611편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멕시코의 예를 정청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5%씩 줄여서 98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나서 영화산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멕시코에게 영화관 창구에

서 1페소의 영화산업발전기금마저 폐지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우리 문화의 입장에 서서 장관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이런 것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새겨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17일날 장관께서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아까 정병국 위원 질의처럼 미국 측과 아직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랬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런데 석 달 만에 축소 방침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강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은 지난해 말 한미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에……

○정종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측에서 먼저 축소 안을 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73일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요구였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것은 미국의 요구고, 아까 우리 쪽에서는 106일 안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말씀을 드리면, 2004년 6월 11일 전임 이창동 장관이 스크린쿼터 조정안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정안은 현행 106일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이번에 73일 축소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문광부에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한미 FTA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라든

가 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축소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축소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004년 12월에 대강 저희들은 92일과 독립·예술영화 14일……

○정종복 위원 재정부하고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을 문서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쟁점 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국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이번의 정부 발표를 보면 미국과 협상을 했다는 흔적이라든가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협상에서 불리하면 의회에서라도 반대를 해 줘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찾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과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떤지 모르겠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광부의 영성한 후속대책이 보이고, 논의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정부 전체가 어떤 협상력도 보이지 않고 문광부는 거기에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한 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력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알아서 머리를 조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자세로 보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협상력을 사전에 봉쇄해 버린 결과가 되고, 또 결국 장관께서도 허수아비처럼 거기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 10월 국감에서 장관께서는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영화계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축소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석 달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시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고 대통령과 총리 생각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스크린쿼터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해 놓고, 또 다른 쪽에 가면 그 반대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관께서 스크린쿼터 사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헛갈립니다.

또 국회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장관께서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 당시에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문광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난번 이창동 장관께서는 ‘스크린쿼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회의 도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국회에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거든요? 이것 국민 무시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 전체의 최고 수장인 장관께서 이번에 문화 진흥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철저히 국민을 속였다 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문광부에서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40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새로운 기금 설치하자는 것입니까,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답변드릴까요?

○정종복 위원 이것만…… 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자는 겁니까,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000억은 국고에서……

○정종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0억, 2000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나머지 부과금 5%는 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흥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기금 설치하자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2004년도 정부에서 발간한 기금 존치평가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종복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기금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보고서를 갖고 현재 57개 있는 기금을 통폐합해서 39개로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다시 또 설치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처는 기금 신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말씀 들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기금 설치에 대해서요?

○정종복 위원 기금인지,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정종복 위원 아니, 기금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기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합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기획예산처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관계자들은 기금 신설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기획예산처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합의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결국 기금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 오셨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종복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백두산 관광에 투자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깐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복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백두산 관광에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답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0일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백두산 시범관광을 위해서 포장용 피치 8000t을 보냈는데 그중 3000t이 부실 시공이 되어서 손실비용이 18억에 달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포장재 배합 비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피치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치 8000t을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종복 위원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종복 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 지원할 것이 또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현재로서는……

○정종복 위원 결국 계속 백두산 관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백두산 관광은 현대하고 아태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복 위원 분명히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지난번에 백두산관광 투자계획이 없다고 국감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금 900억도 제대로 상환 못 하고 있지요?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일부 이자는 갚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런 가운데 또다시 백두산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퍼 주기식 북한 투자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회의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8분 발언인데요. 한 3분만 발언을 하고 5분을 반납하면 순서를 좀 앞당겨서 발언하고 갈 수 있는지 해서……

왜냐하면 발언은 해야 되겠고 순서는 이미 짜여져 있고 그래서 1분 질의하고 2분 답변 듣고 자리를 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미경 위원님들 간에 혹시 조정이 안 됩니까?

○김충환 위원 여당에서 해 주면 좋지요.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이나 박형준 위원님이 조금……

○박형준 위원 저는 바뀐 드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무 번째입니다.

○이계진 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한 권력이 없으신가 해서요.

○위원장 이미경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할 경우에 조금 바꿔 주시니까 어떠신가……

○박찬숙 위원 저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데, 제 시간 조금 쓸 테니까 먼저 드리고 저는 순서대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계진 위원 예, 딱 3분만 발언하고……

○위원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계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광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철 위원 저는 양해를 하는데요, 동료 위원이 바꿔 주셔야지요.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광철 위원님도 동료 위원이에요.

○위원장 이미경 말씀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3분만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이계진 위원 장관님, 현재 열리고 있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어떤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미국의 영화가 3, 40년간 거의 독무대였는데 스크린쿼터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어떠냐 하는 질의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탈북자의 뮤지컬 제작 방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 그 세 가지만 2

분 내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서울예술단 문제하고 사재기,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순위조작 왜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토리노에서는 지금 윤리규정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제 간단한 브로슈어 정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진선 지사가 가 계시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만나는 관계자들에게 평창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답변했다가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계진 위원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평창을……

○이계진 위원 그다음에 스크린쿼터를 오히려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축소·확대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래도 문광부에서는 외통부와 의견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 1년 동안 정부 내에서 씨름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진 위원 씨름에 지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FTA를 해야 된다는……

○이계진 위원 문광부는 이것을 방어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지요.

○이계진 위원 그리고 탈북자들의 뮤지컬 제작 방해 사태에 대해서 문광부가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될 입장 아닌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이 없고……

○이계진 위원 그런 방해의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막……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 부는 지금 직접

적인 관련은 없고요. 사전에 정성산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과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이계진 위원 문광부가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방해하는 것을 막아 주는 보호막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시나리오 내용을 사전에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별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최민식 씨 훈장은 반납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훈장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여할 때, 본인이 그것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그때 결정할 일이지 일단 받은 상태에서 반납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스크린쿼터 문제가 원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들은 못 하겠는데요.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축구협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했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데 처분 내용이 개선 3건, 시정 1건, 주의 2건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대충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엄청난 국고에 대한 부정, 서류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거나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선 3건이었어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왜 감사원 청구를 안 하지요? 이 사안 자체가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축구협회의 범인화 약속을 받아 냈고요.

○이광철 위원 월드컵 잉여금이나 나이키 후원 현물이나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 돈들이 전혀 결산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감사

원 감사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지금 체육계에 대한 불투명성, 예산에 대한 불투명성, 비민주적인 조직의 운영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문광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감사를 끝냈습니다.

○이광철 위원 감사원 감사 요청할 겁니까, 안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은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장관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한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저희 감사로써 충분한……

○이광철 위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내용이 아닙니까,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 부가 감사한 것으로 충분히 감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광철 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아니, 영수증을 조작하고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이 있고 허위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수백억의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안 했는데 그냥 그 조치로 끝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는……

○이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잘못됐다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광철 위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처의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광철 위원 장관님, 소위 FTA는 무역협정입니다, 그렇지요? 그 협상을 시작하는 거지요, 협상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시작하는 겁니다.

○이광철 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부분도 협상의 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 부문이 협상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당사자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 일방이 협상의 어느 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광철 위원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까,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사자 간에는 그런 것이 있지요.

○이광철 위원 우리의 전제조건은 뭐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그러니까 99년도에 BIT를 체결하면서 저희 정부가 이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역시 스크린쿼터의 축소라는 전제조건이 몇 년 동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온 거지요.

○이광철 위원 장관님, 지금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소위 초국적 자본의 획일화에 의해서 시장이 획일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한 문화의 획일화에 대한 세계적 우려와 염려가 큼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도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것이 UN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언론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도 여론의 독점화와 함께 문화가 독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획일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상협정과 관계없이 소위 문화다양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각국의 의견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무역협정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문화를 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부의 의견은 대체 뭐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정부

전체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문제, 협상조건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들 말씀처럼 절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회와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역협상이 시작되는데 전제 조건으로 한 분야는 이미 규정하고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칠레 FTA 같은 경우는 4년 4개월 걸렸습니다.

이번 한미 FTA는 협정 기간이 내년 7월까지 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것도 미국의 협정기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제조건에서 문화는 열어주고, 전제조건이 되는데 협상이 실패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산업도 역시 미국과의 끊임없는 협상과정을 통해서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전제조건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굴욕외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것이 굴욕외교라고……

○이광철 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못됐다고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이광철 위원 영화산업이 여러 연관된 산업과 연계된 중요한,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광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대국과의 협상과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고 결정될 부분이지 미리 전제조건으로 항복하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이 지난 1년 동안의 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FTA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의 조건이 됨에 따라서 그

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이광철 위원 또 하나는 영화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안으로 기금 얘기를 합니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낸 것은 제가 낸 겁니다. 그것은 스크린쿼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스크린쿼터를 확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지켜지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진흥방안으로서 영화기금을 얘기했고 영화진흥기금은 문예기금 6%가 있는 부분을 극장 업자들이 수익으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 정도를 영화기금으로 하면 위험 요소도 극복될 수 있고 한국 영화에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크린쿼터를 내 주고 나서는 영화발전진흥방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모독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하고 별개로 취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위원님을 모독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광철 위원 마치 그것이 스크린쿼터를 전제로 해서 나온 후속 법안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사, 만에 하나 방법이 없어서 73일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석쿼터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한국영화를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고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좌석쿼터제라든가 이런 것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투자활성화 조치, 투자조합의 문제 등 저희들이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아니, 우리가 영화 ‘홀리데이’를 보지만 배급과 제작의 문제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영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걸리지 않는 것이 영화의 특성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CJ엔터테인먼트나 제작과 배급과 상영에 관련된 저희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 5개 회사가 저희 스크린 1500개를 거

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이광철 위원** 우리가 ‘홀리데이’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듯이,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상영권이 거절하면 그 영화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00개의 끊임없이 매년 오는 헐리우드 영화에 의해서 60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영관들이 그렇게 미국의 요구를 순순하게 받아들일 리도 없거니와 이미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이 미국 영화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깐 몇 개만 주 문하겠습니다.

설사 시행령이 규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분의 2에서 5분의 1까지 상영일수를 정하고 장관이 한국 영화산업의 방향을 보면서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미국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5분의 2까지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양성쿼터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쿼터는 별도의 쿼터로서 73일 플러스 다양성쿼터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유율과 연동되는 자동연동제를 시행령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개봉영화에 대하여 2주 정도 좌석쿼터제를 뒤서 한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서, 2주 뒤에는 소위 배급망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런 쿼터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문화부가 목숨 걸고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고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장관께서는 지금 ‘경제부처의 입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십니다. 그리고 ‘노력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지난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1년간 스크린쿼터 92일 안을 가지고 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73일을 고집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솔직한 고백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지난 1년간 재정부와 협의해 왔다는, 그 기간 동안에 있던 겁니다. 지난달 27일 하신 솔직한 고백……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예결위 제10차 회의의 영상입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의에 관한 정동채 장관의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 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을 번복하신 것은 거짓말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하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기됐는데, 영화관 입장료에 5% 기금 불인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또 예술영화가 제작되지도 않는데 100개의 예술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유통과 관련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부가 발표한 대책은 투자환경 개선이라고 그러합니다. 정말 아프면 약을 사 줘야지, 학용품을 사준다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장관께서는 확실한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하루아침에 백지장 뒤엎듯이 일으키고도 그것에 대한 자세가 너무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제관료들이 주축이 된 정책결정 과정에 스크린쿼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뭘 했는가, 문화적 보증을 드는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여러 부처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 협약 비준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자 소집 이전에 협약 비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비준 시기에 대한 입장, 비준 시 문제점, 국내 법령개정 필요 여부 등 비준 관련 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귀부의 의견을 12월 16일까지 우리 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의 공문서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아무

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박찬숙 위원 알고 계십니까? 외통부의 문화협력과에 확인해 봤더니 외교부 쪽에서 빠른 비준을 위해서 문화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외통부에서 문화다양성협약에 관한 문화부의 입장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스크린쿼터 146일 중에 73일을 덜컥 받아들인 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업무 장악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에 관련된 문제하고 또 FTA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박찬숙 위원 연관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장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연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다양성협약에서의 내용은……

○박찬숙 위원 장관님, 한미 FTA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만약 이것이 결렬되면 스크린쿼터 146일, 현재 그 안은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FTA가 결렬된다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숙 위원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 그동안 죽 답변을 잘하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십니까?

FTA가 협상이 돼도 스크린쿼터는 꼭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이렇게 반복하셨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반복이 아니라, 스크린쿼터 유지는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축소된 겁니다만 어쨌거나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제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되고 WTO 뉴라운드에서 문화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시장으로부터 우리의

영화예술을 보호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정서를 함께 보전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부 입장도 스크린쿼터와 FTA는 연계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FTA를……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문화부장관께서는 경제부처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조금 전의 답변은 틀리신 겁니다. 문화부는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공문……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주장했던 92일 플러스 독립예술영화 16일, 그래서 108일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FTA 체결을 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이게 다 무위로 돌아갔다……

○박찬숙 위원 또 하나는 어떻게 146일 중에 반토막인 73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미국과의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한 거고요. 저희들이 미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교섭본부가 미국과 접촉을 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FTA가 결렬되면 146일을 다시 환원해서 고수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은 조금 전에 안 하셨는데요. 저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숙 위원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제도 있었는데,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FTA가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국가 현실에서 FTA가……

○박찬숙 위원 73일로 양보한 건 너무 지나친 양보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와 무관하게 92일로 저희들이 조정해 볼 것을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끝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정말로 유감입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 문광부에 2006년 추진사업으로 ‘인간과 문화중심의 도시공간, 공공디자인 도입 시범도시를 지정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주 반갑습니다.

오는 27일 여야 의원 28명, 그리고 학계 등 공공디자인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에 발족한 공공디자인문화포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회와 전국 광역단체가 제출한 것 중에 가장 잘된 공공디자인전, 그리고 포털 ‘다음’과 함께 가장 국민이 싫어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문광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서 우리 영화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영화랑 외국 영화랑 자유경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경쟁력은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2004년도에 개방된 우리 한국영화 51편의 손익분기점을 분석해 보니까 31편, 61%가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경상이익률도 보니까 2002년, 2003년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2004년에 3%의 이익이 있는 걸로 나왔지만 이것도 실제로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손익분기점 넘는 것 가운데 2편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나옵니다. 이렇다면 우리 영화가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미국에서도 한 8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만 거기에서도 제대로 히트랄까 이렇게 하는 것은 100여 편이 안 되고요. 그건 어느 나라든지 영화시장에서 제작편수의 한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외국 경우에도 영화시장이 몇몇 영화에 의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지, 기본적인 영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대강 10% 정도가 경쟁력을 갖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디오나 DVD 정도로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요사이의 시장입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우리 영화시장의 구조나 형태로 볼 때 경쟁력을 상당히 가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히트를 기록한 작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요. 저희 경우,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 80편 중 겨우 10편 정도 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러한 영화제작의 풍토도 개선해야 된다, 영화 산업의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제 판단은 몇몇 영화에 의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장구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지원이나 대책은 필요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투자조합도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화제작, 또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규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 영화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대폭 했는데요. 이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고 상호주의가 있다면 우리도 미국시장에 대해 쿼터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노웅래 위원 예,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실익이 생길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상호주의,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과 당사자 간에 FTA라는 체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평등계약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불평등계약이라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통상본부나 경제부처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 영화의 진출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440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14.5%고, 2004년도에는 290만 달러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5%밖에 안 됩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제조건이 돼서 한 FTA 협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영화 스크린쿼터를 이렇게 대폭 축소한다면 우리도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전 보고요.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독이나 배우들의 진출 보장을 받든지, 할리우드 영화 기술이나 제작 기법을 전수하도록 협의체를 요구할 생각은 없었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 문제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영화산업을 육성·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영화에 관련된 문제로 국한해서 미국과 어떤 조건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으로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스크린쿼터 축소만 당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부처나 정부 전체의 판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국익이 확대된다는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와 관련된 개별 협상을 미국과 벌여야 된다는 것을 통상분부나 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VOD 다운로드 등 온라인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국에 비해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FTA 협상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요구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스크린쿼터 축소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인오락실 관련해서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성인오락실에 관해 게임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걸 보니까,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 통계를 보면 200만 원 이하인 이용자의 비중이

43%입니다. 그러면 불법 성인오락실이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 정말 중산층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노웅래 위원** ‘바다이야기’ 게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이거는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건전한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지요.

○**노웅래 위원** 도박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바다이야기’ 같은 것, 메모리연타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웅래 위원** 여기에 원장님 계시지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예.

○**노웅래 위원**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예,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메모리연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통과되었지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 이후에는 심의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심의 관련해서는 영등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거기 옆에 계시잖아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전혀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바다이야기’는 통과시켰고, 나머지는 통과 안 시키고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연타 기능은 일단 심의를 받고 나간 기계를 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노웅래 위원** 영등위는 처음에는 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불법 개조한 걸로 봤다고, 오락가락하시고…… 성인오락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실 건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들로서는 맡겨진 심의를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서 연타 기능을 가진 게임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장에서 불법적으로 기억장치를 가동시켜서 그런 사행성을 높이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신 그런 심의는 더욱 철저히 해서 사행성 있는 게임들이 시중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품권도 12개 중에 6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어느 곳에도 가맹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17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업무 감사를 이 자리에서 많이 받으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오늘 이 시간에 좀 특이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죽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스크린쿼터 부분에 대해 질의를 안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광위에서 활동하면서 봤을 때 정치공세 차원의 질의나 운영, 그런 부분은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야당 위원들의 질의나 질타,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지 않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심지어는 언젠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광위 동료 여당 위원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참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얘기를 하게……’ 곤혹스러운 여당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앞에 계신 이광철 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부는 지금 이 시간 정부와 싸워야 된다.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사

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17대 의원 아니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만약 이 자리에 장관께서 앉아 계신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어떤 태도로 임하셨겠습니까?

저의 면전에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동채 장관님, 정동채 의원님이 그동안 활동해 오신,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경향이나 사고, 이런 입장에 비추어 봐서 어떤 의원보다도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켜 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섰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곤혹스럽겠지만, 이 자리가 곤혹스러워야 됩니다. 곤혹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질타와 목소리도 없다고 그런다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각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 엄청난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발표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 잘못된 것,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못된 거라고 본 건데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 정책을 발표한 뒤에 국무위원으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영세 위원** 지난번 1월 27일날 ‘스크린쿼터 조정 발표문’에서 장관님께서 첫 서두에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시작하셨어요. 정말 그런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른 경제부처, 그건 그렇게 가겠지요. 모든 걸 경제 논리로…… 미국 앞에서 그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럴 때야말로 힘 대 힘 대결이니까 힘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지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갈라서서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여야가 따로 가야 될 부분입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장서시고……

미국 앞에서 행정부가 어렵겠지요. 다른 경제 논리 앞에 문화부장관, 문화부의 간부들로서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그때 국회의 힘을 빌리십시오. 영화인들의 힘을 빌리십시오.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힘을 빌리십시오. 그게 전략이고 전술 아닙니까? 지금 어떤 때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어느 한 면만 가지고 대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시간인데요. 사실은 앞에 질의가 다 되었습니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뭘 더 확인하고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줄줄이, 오후 시간 내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장관님께서 간부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문화예술 제도권에 있는 수장들이 여기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문화예술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그런 상임위 위원들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십시오.

그리고 정 안 되시면 홀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떠나라,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비우시고 흔쾌히……

우리가 지금 강대국 앞에…… GDP가 미국의 7%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가 같은 멕시코 영화가 5%로 무너졌잖아요. 대만은 35%였다가 미국하고 FTA 체결하고서 5%로 전략해 버렸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가 안 무너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일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다른 산업은 다 ‘경쟁력’ ‘경쟁력’ 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따지는데, 핸드폰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시장의 18%입니다. 우리 영화는 지금 세계시장에서 0.5%인가 0.6%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85%가 넘는 미국의 영화산업하고 어떻게 경쟁력이 됩니까?

영화인들이 밥그릇 쟁간다고 그래요. 또 집단이기주의라고 일부 언론에서 매도해요. 지난번에 농민들이 쌀 개방하면 안 된다고 생존권 싸움하

니까 또 밥그릇 싸움, 집단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왜 집단이기주의입니까?

지금 스피치 가지고서는 ‘살인의 추억’ 못 만든다, 거기서는 안 만들어 준다, ‘왕의 남자’ 볼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장관님, 힘내시고 정말 잘 안 되면 여기 있는 백을 좀 동원하십시오. 이미경 위원장님, 우상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정동채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인의 소신은 따로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은 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문광위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영화에 대해서 개인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입장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나누어서 할까 싶습니다.

우선 장관의 소신부터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쿼터와 FTA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동채 장관 개인으로서의 소신이 틀림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004년 6월 11일 전임 장관의 정책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스크린쿼터와 FTA를 연계시키지 않고 주체적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화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의 쿼터를 확보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장관으로서 혹은 또 국회의원 정동채로서는 FTA와 스크린쿼터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취임한 이래 그동안 죽 그러한 입장을 가져왔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재웅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장관을 하다 보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의 통상 관계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바뀐 것은 아니고 지키지 못했  
다,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부 입장이 지켜지  
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웅 위원** 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밝힐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의  
이 노력을 끝까지 무산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좀  
밝힐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곤란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장관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기록을 경제부처에  
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 멤버로서 가  
서 발언한 것 외에는, 제 발언 내용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재웅 위원**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서 읍  
서버였습니까, 아니면 이 회의의 주체였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읍서버는 아니고 회의  
참석 멤버였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발언했고, 한  
1년 동안 공식회의에서만 아니라 통상본부장  
과……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FTA와 연계시켜야 되겠다고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FTA를 할까 말까 결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73일로 축소하면  
FTA 협상이 시작되고 73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의 전제로 정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미국이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을……

○**이재웅 위원** 73일로 못을 박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73일로 못을 박았  
습니다.

○**이재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106  
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을 지켜내지 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004년 12월에 정부의  
입장은 FTA와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저희 부가  
주장한, 그동안 저희들이 영화인들과 접촉하면서  
나온 결과인 92일과 14일의 독립예술영화, 마이  
너 쿼터(다양성 쿼터)를 합쳐서 106일을 지키다

는 것이 저희 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106일이라는 것은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일수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식적으로는 스크린  
쿼터를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99  
년 이래의 영화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으로 만나서 대강 92일과 14일 그리고 2000억 이  
상 3000억까지의 지원을 하면 FTA와 연계시키  
지 아니하고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동안 통상본부에서 저희 92일 안을 가지고 미  
국하고 대화를 했는데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한  
1년 동안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FTA를 체결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미국의 입장상 2007년 6월까지의 협상  
을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73일을 수용한 것이  
지요.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천영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  
서 ‘106일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  
게 답변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웅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은 또 역  
시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 그  
만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일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73일은 발표된  
것이고, 지금 한국 영화의 경쟁력과 저희들이 갖  
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동원한다면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현행보다 더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재웅 위원** 답변을 다시 돌리지 마시고  
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얘기입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영화산업의 여러 가지 상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논의되었고 연구  
보고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  
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의지와 소신을 묻고 싶다  
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노력하겠습  
니다.

○**이재웅 위원** 물론 그것도 답변해 봐야 다 도  
루묵으로 돌아갑디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73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73일이 확정적 전제조건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73일을 다시 무위로 돌릴 수 없는데 106일이 왜 나오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번에 저희들 의지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73일로 줄이지만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106일은 뭘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현행이 146일인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가 경감시킬 수 있는 것 20일씩 40일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스크린쿼터 일수가 106일입니다. 그중에서 33일이 다운되어서 73일로 된 것입니다. 146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106일이었습니다. 경감시킬 수 있는 일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6일인데 여태까지 146일로 되어 있었다 그 얘기지요? 스크린쿼터가 146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46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웅 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6일인데 이번에 73일로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46일인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씩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6일로 통용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106일에서 지금 73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겨우 33일 줄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겨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106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실제 행해지고 있는 쿼터 일수가 106일 정도 되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해진 73일, 이것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정동채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앞으로 73일 이하로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상본부장이 73일은 지키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이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의 소신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73일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자세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참으로 걱정스럽고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는 아무리 전제조건이 73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어떤 힘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노력들을 동원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73일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이재웅 위원 73일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재언급할 수 없다, 그것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재웅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정동채 문광부장관께서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많이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사실입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까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각도를 좀 달리해서 정부 내의 문화정책,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쿼터의 양보는 영화만이 아니라, 제가 영화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영화인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기도 했습니다. 마는, 저는 이것을 영화산업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문화콘텐츠정책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 내의 문화마인드, 문화정책의 빈곤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광부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입니다.

○김재홍 위원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국가가 지녀온 문화마인드일 것입니다. 문화예산도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종교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책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1%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화예술 정보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국익에 대한 철학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문광부장관으로서 문화예술계 국민들의 새로운 회구를 들어서 좀더 노력하시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필타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쿼터를 양보한 것이야말로 굴뚝산업을 불들기 위해서 21세기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포기했다, 대신 희생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홍 위원 정부 내 국무위원으로서 어려우신 점도 있겠지만 문화계를 대변하고 대표해야 될 문광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고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노력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김재홍 위원 더군다나 정동채 장관의 열린우리당 또 정부 내의 비중으로 봐서 힘을 들여 노력하고 싸우면, 싸운다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정책적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위원님의 과분한 평가고요.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미 FTA 협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다시 포함시켜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창동 전 문광부장관 때 얘기했던 92% 수준, 연동제를 최소한의 목표로 걸고 재협상하기를 촉구합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교육책이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화 매출액 순위를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장 매출이 몇 % 정도인지 아시지요? 제가 조사한 것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산업 매출 구조에서 극장 매출이 2004년도 77.3%입니다. 비디오가 6.4%에 불과합니다. DVD가 이제 겨우 2.3%입니다. 해외 수출은 8%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아직 멀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는 어떻습니까? 제1위의 매출액 규모가 비디오와 DVD로 나타났어요. 35%를 넘습니다. 해외 수출이 35%거든요. 우리처럼 극장 상영이 총 매출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구조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불법시장의 문제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미국처럼 DVD나 비디오의 부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김재홍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또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IPTV나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저작권 보호랄지 이런 불법시장의 문제가 아직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탓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인데 불법 영화파일…… 영화진흥위원장 나오셨습니까? 불법 영화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층들 때문에 영화계가 받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28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2800억 이상이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서 스크린쿼터제 재협상을 하시는 일방, 국내에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영화인·영화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국회에서는 법을 좀더 잘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발표하면서 예술영화전용관을 100개 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예술영화전용관이 몇 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 10개 정도입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예술영화가 한 150편 정도 제작되어서 그중에서 겨우 10%도 못 되는 것이 소개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장되는데, 그것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재홍 위원** 또 예를 들면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구분을 두고도 영화계와 정부 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기준도 엄격히 정해져야 될 것이고,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영화제작사·영화인보다 배급사·극장주, 극장주 협회가 말하자면 결정권을, 권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일 큰 배급사 2개 잘 아시지요? 시네마서비스와 CJ인데, 관람객 점유율이 몇 %나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 영화 전체 말씀입니까?

○**김재홍 위원** 예, 전체 관람객…… 2개 배급사에 배급되는 영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체는 한 59% 됩니다. 2개 전체는 제가……

○**김재홍 위원** 70%를 넘습니다. 72,3% 정도 됩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도 언론정책도, 언론정책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과점 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독과점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크린쿼터제 영화정책 때문에 이런 문화적 독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 대기업·대자본에 의해서, 큰 배급사에 의해서 영화 상영, 영화가 독과점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강 5개 회사가 한국의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작·배급사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쉽게 넘보지 못한다고 봅니다만, 또한 독점적 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정부가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수단은 없으나 공정거래 문제 등이 있는지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예.

끝으로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가 영화인들의 요구, 영화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보완책이 나왔지만 예술영화 DVD를 공공도서관 등이 사 주기를 바란다는지 하는 것들을 좀더 자세히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재경부랄지 외통부랄지 서로 이런저런 회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외경제장관회의 말씀……

○**심재철 위원** 그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 회의도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실무자들 회의라기보다는 제가 주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한덕수 부총리,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거의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 보았자 의견 전달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 회의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만, 거의 중요한 얘기들은 방금 제가 거명한 사람들하고……

○심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회의한다고 공문도 이래저래 주고 받았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회의 일자가 다 발표됐었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주고받은 공문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공문이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재정경제부에 그게 있을 텐데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광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문광부 영상산업진흥과가 무슨 국 소속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산업국……

○심재철 위원 예, 이쪽에서 ‘주고받은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으로 뭘 주고받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거 지금 은폐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은폐는 아니지요. 은폐할 수도 없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것을 문서로 협의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회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가 문제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재정경제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즉 파일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재경부가 아니라 문광부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다니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 부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공문을 하나도 주고받은 게 없다고 지금……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서로 무슨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얘기한 것이 보니까 무려 7건이나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부처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7건이 지금 여기 나와요. 그런데도 문광부에서는 접수받은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지금 거짓말이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무위원석을 돌아보며)

답변드리세요. 어떤 게 7건인지……

○심재철 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뻔히 지금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그러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니, 그러니까 해명을 하라고……

○심재철 위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예전에는 스크린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73일로 줄었는데, 본인의 말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키지 못한 거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스크린쿼터 유지는 지금 되고 있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계속 지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사과드렸습니다. 사과 드렸고,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 번 할 생각이구요, 그것이 사과의 문제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체결을 73일로 했으면 그다음에는 최소한 문광부장관의 입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낫고, 정부 간에 협상력을 높여 주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지금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책임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구요, 사퇴하는 문제는 제가 또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4000억 원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2000억 원을 영화에다가 5%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입장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FTA 체결로 해서 어느 부분이 이득을 보고, 영화 쪽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하는지를 좀 따져 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성과분석을 이미 발표했고……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당연히 따져 보고, 따라서 그렇다면 FTA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좀 돈을 더 내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기금 조성 원칙에 맞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쪽에서 돈을 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서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영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를 산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4000억 원, 그리고 2000억 원 입장료에다 5%…… 그래 가지고 그 산출 근거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깐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40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딱 이 한 줄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조성하는 원칙 자체가 상실되고 순전히 졸속 입막음용으로 발언한 것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위험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위험 소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문예진흥기금에서 위험을 판정할 때 다섯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딱 집어 가지고 ‘이래서 위험 소지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펴보면 다섯 가지를 다 살폈어야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용도 외에 사용하는 문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하고 이제 본법에 규정해야 되는 것을 시행령에 근거를 뒀다는 그 두 가지 지적으로 위험이 된 겁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법률 해석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섯 가지 사유로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이유만 대 가지고 위험 소지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전인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개 부분에 대해 위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했고, 또 저희들의 안을 법률회사에 자문해 본 결과 저희들의 안이 이번에는 위험이 아니라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다가요. 화우에다 의뢰했을 때 사유 다섯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법률 자문이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은……

○**심재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국립극장장 심사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심사가 80분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심사는 딱 30분이에요. 7명에 대해서 30분이니까 한 사람당 4분 20초예요. 4분 20초 동안에 그 사람의 이력서 살펴보고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살펴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민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심재철 위원** 그래서 졸속으로 심사했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다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

○**심재철 위원** 세상에 7명 서류를 심사하는데 딱 30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특정인을 미리 내정하고 졸속으로 심사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심사위원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리 내정을 합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사를 졸속으로 하지 말고 착실하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극장장 발표하는 날짜보다 한 달 정도 발표가 늦었습니다. 그 기간이 신원조회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 신원조회를 할 예정을 하고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예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꼼꼼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지금 국립극장이 책임운영기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중앙인사위원회한테 자료를 올립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재철 위원** 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검증을 하는 규정이 정부 내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여기에다가 면제심사를 하라고 나중에 얘기까지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심사위원들이 아마 인터뷰를 안 하신 모양인데요. 그 문제는……

○**심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기관이면 장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솔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월권을 하니까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는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문화관광부는 미흡하도로 나왔습니다. 좀 창피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창피합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떻게 잘하실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출판업계에서 책 사재기 파문이 났는데 이것도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즉각 대응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 대응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다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회의 개최 실적도 전무하고 운영세칙도 전혀 제정하지 않고 지금 직무유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나중에 출판 쪽에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살펴볼게요’ 하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계속 오전 내내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장관님,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게 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영화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영화산업이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73일로 축소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73일로 축소해도 괜찮다고 본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솔직히 미국과 FTA 협상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영화산업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 차원에서……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적어도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렇게 축소되었을 때 미칠 영향력에 대한 것들

은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저희들이 영화진흥위원회와 그동안에 스크린쿼터 축소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일시적……

○이경숙 위원 분석한 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국산 점유율이 50% 넘은 것이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55%라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 해에 2~3편의 흥행이 있으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이익률을 봤더니 2002년도에는 경상이익률이 -12%였고 2003년도에는 -8.9%, 2004년도에는 3%로 이렇게 흑자로 했지만 실제 2004년도에는 실미도하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빼면 경상이익률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화가 안정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축소를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역시 스크린쿼터 조정 에 따라서 투자가 감축될 우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수익의 변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것은 지금……

○이경숙 위원 적어도 이런 것이 확증이 되어 있을 때 문화관광부가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그렇지 어떤지 이게 걱정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영화산업의 전망과 이런 것과 무관하게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이 요구한 대 전제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산업의 분석하고는 무관하게……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전체적인 국익에 어떻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갔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외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만 우리의 영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진하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저희 정부가 이미 발표한 4000억 지원 방안……

○이경숙 위원 4000억도, 기획예산처하고 재정부는 지금 기금 폐지 입장이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국고로 2007년과 2008년에 2000억하고요, 그리고 영화입장료에서 5%씩 떼서 400억씩 5년 동안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동안 우리 장관님께서 FTA와 스크린쿼터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오셨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많은 종사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논의를 하고 대안 같은 것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지한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계속 제가 논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이 성인게임장인데요,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1만 곳이 넘지요? 1만 곳, 1만 4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근절 대책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보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품권 재사용 금지를 위해서 인증칩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그것은 지금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인증칩 문제,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경숙 위원 언제 될 겁니까? 이제는 언제라고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게임개발원장님, 언제쯤 나오니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현재 저희가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이 끝나고 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품연구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기술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펙이 나오면 민간하고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인증칩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바로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언제쯤 되겠습니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종식 지금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된 이후에 6월 시행 이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발표를 보니까 심야 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경품 지급 고시기준도 1시간에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핵심은 9만 원이라도 제발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날린다는가 수백만 원 정도를 다 날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렸을 때 업주들의 반발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독성이라든가 사행성을 굉장히 감소시켜야 되지만 건전한 게임은 또 오락으로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연 업주들은 1만 원으로 줄었을 때 정말 반발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고 한번 법을 만들고 정책을 하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저희들 계획은 12시부터 9~10시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

음에 9만 원에서 1만 원 등등 이와 같은 것은 어제 저희들이 1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행성 게임을 어떻게 정말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을지라도, 규칙을 만들었을지라도 얼마나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경찰과 우리가 이렇게 해 봐도 또 허점은 나오고 허점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경숙 위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가 그것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예시하고 연타 같은 것, 그러니까 한 번 지급하는 것이 계속 터지게 불법 개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그래서 이미 예시·연타는 아까 영등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심의를 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검찰이나 경찰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발 올해는 이런 성인게임장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장에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제가 이번에 한 열흘 워싱턴 D.C.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의원들을 상당히 많은 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미국의회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한미 FTA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FTA 같은 경우는 NAFTA에 의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FTA고, 또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서비스, 농산물, 문화 문제의 FTA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갖

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FTA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갖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우리가 당하고 마는구나……

물론 궁극적으로 FTA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농산물, 서비스 시장 일반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 전략을 정말 제대로 갖고 임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아직도 그 협상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은 정부와 의회와 그쪽의 싱크탱크와 이런 쪽이 다 연대가 되어서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만날 순간순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라 바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FTA 결과가……

실제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FTA는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훨씬 많이 될 것이라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FTA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기대하는 FTA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FTA를 하려면 아주 고도의 협상 전략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과연 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이렇게 쉽사리 내놓고 나서 앞으로 FTA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갈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부가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비의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말은 세계 하는데 행동은 그것보다 훨씬 낮게 한다, 행동하는 것이 말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조적으로 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말로는 ‘자주, 자주’ 하면서, 한미 관계에서 대등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도 그렇고 FTA 협상도 그렇고, 말뿐이지 행동으로 그것을 따라 주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자주적인 정부로 비치고 싶어 하면서 대외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굴종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많은 위원들이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것은 결국 정부 내에서 문화관광부의 협상 전략의 문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협상 전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문화관광부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특히 영화인들의 실질적인 자존심을 세워 주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을 죽 들어보면 실제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이것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소위 문화개방과 관련해서 이런 쟁점들이 계속 나왔을 때 문광부가 정부 내에서 그 정도의 발언과 영향력밖에 못 갖고 계속 끌려다닐 경우에 결국 문화 문제가 세계 교역에 있어서도 가장 특수한 영역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끌려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광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매번 사안마다 협상에 이끌려 가면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의 사후 대처도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자존심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내놓고 기껏 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99년에 스크린쿼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박지원 장관이 해 놓았던 대안, 거기에 약간 살 붙인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듯이 2000억 원 기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땀 때려 놓고 사탕발림을 하는데 그 사탕이 가짜 사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땀질식의 정책과

처방을 가지고 과연 문화관광부가 정부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살려 갈 것이며 앞으로 소위 문화시대라고 만날 얘기하면서 문화개방이나 문화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선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무컨벤션 문제를 손봉숙 위원님이 제기를 하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강남구에 분명히 12월 8일날 카지노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무컨벤션 별관의 3층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셨지요? 문광부에서 12월 8일날 협조요청을 했는데 12월 14일날 강남구에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요? 이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광부와 관광공사가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무컨벤션에 그와 같은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실제 그렇게 해 주기로 한 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지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카지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관광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지노업이 BSI가 90으로서 앞으로 계속 불황을 겪거나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박형준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카지노업 자체의 시장이 안 그래도 위축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 과당경쟁을 가져오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유도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국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봤고요, 연구보고서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중에서도 카지노업계가 BSI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추세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5년 보고서에 비하면, 2005년 당시의 카지노 업계의 수치보다 2006년도 것이 오히려 낮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어쨌든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카지노 시장의 외화획득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워 놓고 새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업체들끼리 또는 우리 업계 내에서 과당경쟁과 인력 빼돌리기 이런 부정적인 역기능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예, 카지노를 이어 가겠습니다.

세븐럭 코엑스가 오픈을 했는데 반쪽 카지노로 오픈한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허가를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 사장이……

○손봉숙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 아시면서도 본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본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가계약 때는 없던 제2조2항 ‘임대차 목적물을 카지노영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관공서의 제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왜 들어갔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가 선정 위원회를 선정할 때 세 곳 다 용도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위탁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손봉숙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곳이라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뭘 몰랐다고 그러십니까?

심사할 때 영업공간과 시설조건이 평가항목 중에 55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무가 만점을 받은 유일한 곳입니다. 한무는 용도 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만점을 줍니까? 2위인 롯데하고 5.9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롯데가 됐을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손봉숙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영업장 선정위원회의 임무는 카지노 영업하기 좋은 새 집 고르기 임무였습니다.

○손봉숙 위원 아니, 새 집을 고르는데 용도도 변경이 안 되는 것을 골라 놓으면 뭐에다 씹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왜 그러느냐 하면요……

○손봉숙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이 2층, 3층을 통합해서 테이블을 80개 놓고 머신을 400개 놓는 국내 최대의 카지노 업장을 만들겠다 그랬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용도 변경이 지금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봉숙 위원 용도 변경을 누가 합니까, 강남구청이 하지요?

그런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남지역 건물 850평은 이미 위락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손봉숙 위원 850평은 2층에 한하는 것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3층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힐튼호텔은 위락지구가 지정이 아예 안 되어 있었고……

○손봉숙 위원 지금 힐튼호텔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아닙니다. 저희는 세 개를 다 같이 진행했고……

○손봉숙 위원 그러면 이미 알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영업장 선정위원회로부터 그 상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손봉숙 위원 저한테 10분, 15분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그 본계약의 내용에 보면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관공서의 제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용도 변경을 완료하지 못했지요, 의무 조항의 위반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못 했지요.

○손봉숙 위원 아니, 글썽 못 했지요, 의무 조항의 위반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이제 그……

○손봉숙 위원 아니,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위반이지요, 왜 계약 해지 안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당시에 세 곳 다 용도시설이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손봉숙 위원 용도 변경이 안 되었는데 왜 만점을 주며,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해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세 번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8일날 문광부장관이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냈고 강남구청에서 안 된다고 답이 왔고, 한무가 1월에 다시 보냈고 강남구청이 다시 안 된다고 그랬고, 한무가 세 번째 또 보내도 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3층은 위락시설로 쓸 수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됩니까, 강남구청장이 바뀌면 가능합니까,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손봉숙 위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당권을 잘못 기록했다고 그래서 가계약했던 것을 전격적으로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해지를 하면서 의무 조항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해지 안 하는 이유가 뭐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저당권 사항하고 이 건 사항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손봉숙 위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은폐 아니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요, 3층의 용도 변경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요?

은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은폐한 적도 없고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것은 한무에 대한 특혜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봉숙 위원 아니,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와서 생각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위원님,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손봉숙 위원 아니, 글썄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8분밖에 없어서 쉼어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약을 했지요, 맞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처음부터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추천받았을 때 세 곳 다 용도 변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심사위원은 용도 변경이 안 된 줄 몰랐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줄 알면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용도 변경이 될 줄 알고 점수를 준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위원님, 세 곳 다 용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래서 용도 변경이 앞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받아야 됩니다.

○손봉숙 위원 아니, 손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약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약은……

○손봉숙 위원 영업을 억지로 진행시켰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억지로 진행을 시킨 게 아니고요.

○손봉숙 위원 반쪽인 것 알면서도 진행시켰잖아요, 안 된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받고도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해약을 왜 못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안 된다는 법적 결론이 난 것은, 반려된 것은 2월 초의 일이

고요.

○손봉숙 위원 아이, 참 왜 이러십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12월 14일 강남구청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50m 이내에 일반 주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을 12월 14일 날 받으셨는데 무슨 1월 얘기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12월 초 사항은요, 벌써 저희가 영업장 개장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이미 850평을 영업장으로 열 수 있게……

○손봉숙 위원 똑같이 아는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859평 연 것을 누가 몰라요, 열었는데 그것은 반쪽도 안 되는 걸 열었잖아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강제로 열게 합니까, 12월 14일날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약 해지하고 열지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다른 데에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이미 그때는 영업 준비가 거의 진행이 된 상태고……

○손봉숙 위원 준비됐어도 해약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안 되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해약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손실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봉숙 위원 누구한테 손실이 갑니까? 한무에 갑니까, 사장님한테 갑니까, 문광부에 손해가 옵니까, 어디에 손해가 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랜드코리아레저는 1월달에 문을 열어야 될 사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손봉숙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인력도 많이 채용을 했고 필요한 장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봉숙 위원 그러면 법에 어긋나도, 계약을 안 지켰어도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해를 감안해서 그냥 진행을 시키십니까? 그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손봉숙 위원 그럼 장관님이 답변하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영업장 개설 요건은……

○손봉숙 위원 아니, 사장님 됐습니다. 장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이미 12월 14일날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한무가 문을 연 것은 1월 27일입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당권 문제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계약을 취소하던 문광부가 그 서슬 퍼렇던 것이 어디 갔습니까, 왜 계약을 해지 안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사업자 선정은 공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손봉숙 위원 감독할 권한이 장관님께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나 사업장 선정은 공사 고유권한이고요. 우리 부는 영업장 선정에 따른 소유 임대차 관계, 영업계획 등을 확인하고 허가했습니다. 본 허가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3층을 제외하고 규정에 맞는 2층에 한해 허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봉숙 위원 어째서 당연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층 영업장만 운영……

○손봉숙 위원 장관님, 그것 읽지 마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허가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영업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가 판단할 수 있는……

○손봉숙 위원 장관님, 그것 써 준 것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것이 공식적인 견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손봉숙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읽으시면 뭐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사업자 선정은 공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손봉숙 위원 고유권한이어도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계약과 내용이 틀리면 해지를 할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사 사장이 지금 답변을……

○손봉숙 위원 공사 사장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장관님은 눈감아 주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일단 사업자 선정에……

○손봉숙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의무조항입니다. 제반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사 사장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 답변이 내용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하십시오. 해지하기를 권합니다.

위원장님,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1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스크린쿼터를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는 문광부의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미국에다가 송두리째 상납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제 앞에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스크린쿼터 발언에 대한 걸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문광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문광위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문화의 가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한 시각이 그 문화의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UNESCO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원에 한 가지의 꽃만 가득 피어 있다면 그 정원은 아마 지루하고, 상투적이고, 또 아주 행복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미국의 태도가 세계 각국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을 반대했던 미국이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또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정말 어스럽지 못한 태도이고 또 미국의 우월주의가 각 나라 문화의 다양함 그리고 또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오히려 더 폭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기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입니다.

정동채 장관님은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해 오셨고, 다만 예술영화라든가 또 실험영화, 이런 마이너 영화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영화계와 협력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관님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외교통상부의 협상 능력을 질타하고 또 질타합니다.

외교통상부가 하는 일이 뭐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설득하고 또 그것을 관철해 내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통상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전제조건은 단 한 가지, 스크린쿼터 축소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것은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상부의 외교·통상 능력이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점들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다시 한번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 저는 문화관광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정책 큰 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1세기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왕의 남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과 창조가 숨 쉬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남자’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바로 전통과 창조가 동시에 숨 쉬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서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정책의 큰 틀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대한민국 국익에 우선하는 가라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오류는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2005년 1월에 한국영화 점유율은 25.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점유율은 28.7%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2월을 제외하고 100만 명 넘은 한국영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한국영화 위기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가 4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45억 9000만 원의 이윤창출 구조를 가지려면 170만 명 정도의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83편인데요. 실제로 이 중에 흑자를 기록한 영화는 24%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화를 더욱더 뒷받침하고 또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관광부가 한국영화의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한다면, 만약 스크린쿼터가 우리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연동제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부활할 수 있는 연동제 방식을 협상의 대상에 놓을 수도 있습니까?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다는 방침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정부에서는……

○김재윤 위원 예를 들면 73일로 축소하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윤 위원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해서 한국영화 위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73일로 축소하고 난 다음에, 물론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우리나라 정부의 영화진흥 정책의 일환이고요.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와 관련된 분야는 우리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것 외에 앞으로 통상 협상을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입장으로서는 영화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관광부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고 살 거리, 먹거리, 성장동력이 무엇인가를 짚어 보는 관점에서 문화관광부가 촉구하고 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정부의 정책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재정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문화예술 진흥 재원의 다변화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기본 근간은 저는 기금과 국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제 많은 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만, 지금 국고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저희들은 문화예술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 저는 국고의 뒷받침 없이는 문화예술진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의 지원과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의 과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장관님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은 굉장히 중요한…… ‘왕의 남자’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그러니까 오방색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현대와 접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문화기술과 접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강혜숙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구도 확대하고 예산도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우리의 문화 원형에서 이번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도 나왔고, 우리의 문화 원형에서 소설·희곡 등 모든 문화예술이 잉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저희 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충실한 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자치단체장들의 그런 불법, 선심 행정, 월권,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 분야에서, 이관된 업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방이양사업평가단을 구성해서 문화관광부가 이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몇 번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금 평가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면밀한 평가를 해서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환원할 수도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우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6쪽에 보면, 농어촌 고령자 생활여건을 고려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된 곳하고 예산……

그리고 7쪽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확충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장관님께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

니다. 이것도 추진계획하고 선정지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L, 투자사업이 선정된 곳……

그리고 부산 영상문화도시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지금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해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함께 영화종합촬영소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정부는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의 매각과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형편임으로 이 시점에서 어느 시기에 옮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이게 전북에서는 ‘전북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전북에서 주장하는 것이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영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전주와 정읍 일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들이 그쪽에서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촬영소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촬영소가 어디 한 곳에만 꼭 있어야 된다고 방침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타당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호 위원 영화전문지 ‘필름2.0’이나 ‘씨네21’ 같은 데를 보면 기장으로 영화종합촬영소가 간다고 그러고, 또 전자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전해는…… 작년에도 제가 영진위 쪽에도 문의를 했고, 장관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계속 가중되니까 문광부의 명확한 입장을 문광부 홈페이지에라도 올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광부 홈페이지에 단 한 자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조사 용역비는…… 그 용역비 용도가 확실하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윤원호 위원 어디로 가기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의 방침은 부산으로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윤원호 위원 지금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모든 여건으로 봐서 매각이 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걸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울 때 어떤 대책을 세울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문광부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검토하도록……

○윤원호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한 브랜드 세계화 사업 추진’에서 한식, 한지, 한옥 등이 있는데요. APEC 때 두루마기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한복도 좀 넣었으면 합니다. 한 브랜드 속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연히 한 브랜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복, 한지, 한식, 한국어, 한옥,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자료에 한복은 없습니다. 한복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10쪽에 보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보고서에서는 다 명기하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10쪽에 보면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윤원호 위원 그리고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IOC 총회 유치가 무산되었거든요. 부산지역에서의 여론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회 의장이 유치활동을 하는 게 위반이 되어서, 윤리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부나 KOC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매우 적절치 않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지적입니다.

○윤원호 위원 부산 쪽에서는, 언론에서 사설로

도 정부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건 지금 정부가 나설 수 없습니다. IOC 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의장이 움직인 것까지도 경고하고, 이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IOC 총회가 유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뒤 타를 어디에다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윤원호 위원 그 지역에서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대단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화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건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비용을 보면, 올해는 61억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예산에는……

우리 전통사찰이 어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7년 예산에는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천태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오늘 내내 스크린쿼터 얘기인데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질의를 받고 계신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국영화 지원을 위해서 4000억의 기금 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2000억 원 국고, 그 다음에 극장 입장료에서 5%를 떼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극장 업주들과 의논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았습지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예진흥기금도 위헌소지가 있어서 철폐되었다는 얘기를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주들의 얘기는 결국

나중에 입장료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 입장료를 올리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5%를 저희들이 거둘 생각입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극장주들과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예술·독립 영화 전용관을 100개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영화 제작사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용관을 100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100개 영화를 프린트하려면 2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연히 저희 지원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예산 영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영화, 그리고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10개 상영관을 한 100여 개 정도로 늘리고 또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한 지원, 또 투자조합의 활성화 등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영화계 쪽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영화계 쪽도 100% 만족할 만한 효과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영화계 쪽하고 충분히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화의 경우 많은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합니다만 영화산업이 굉장히 위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독립영화관 100개, 이런 걸 만든다고 하셨는데 한국영화 전용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독립영화 전용관을 만든다는 건, 새롭게 건축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있고 또 대학에도 있고 또 서울 시내에도 기업체에, 민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영화 전용 상영관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호 위원** 스크린쿼터 축소하고 맞물려서 한국영화 전용관을 만들면 영화계에서는 환영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어떤 업자가 그렇게 만든다면 저희들이 만류할 못 하겠습니까만 영화관을 증설하거나 짓거나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지, 정부가 한국영화 전용관을 건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극장주가 한국영화 전용관을 만들어서, 수익이 된다면 한국영화 전용관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한국영화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국내 3대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극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 중 CJ엔터테인먼트는 드림웍스와 미국 영화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윤원호 위원** 외화수입을 하고 있지 않은 롯데시네마와 쇼박스가 외화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한국 영화인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수입한 영화로 스크린을 채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배급사가 극장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수단은 공정거래 위반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법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문화의 세계화’라고 해서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 강화’에 보면 대개 문화원을 특화하거나 또 확충하는 내

용이 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 계통의 문화 전략은 어디에서 주로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2월 중에 아르헨티나문화원을 새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일단 남미의 스페인어권에 우리 문화콘텐츠의 보급,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을 생각이구요. 또 기타 중남미 지역에도 문화원을 더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문화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즉 공연하는 문제, 공연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가, 지난번에 뉴욕에서의 ‘비’ 공연도 봤지만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해 보니까 현지에서는 우리 기대만큼 평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원천, 즉 말하자면 우리의 음악, 우리의 몸짓이 투영되는 이러한 한류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그것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해외 공연도……

또 해외에서의 우리 문화가 국내에 와서 다시 손보일 수 있는 이런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스크린쿼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 외부에서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국내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우리 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분야에 특별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불법 비디오·CD·파일에 대한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4000억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부족합니다. 400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한 8000억 정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 관련 부처와 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대외무역을 이유로 해서 문화에 대한 양보를 요구한 만큼 우리 문화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8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다가 다소 좀 조정이 있더라도 꼭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73일로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수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의 경우 극장에 배급할 때 5대 5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외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6 대 4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우리 영화도 외화와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니까, 문광부 산하기관들이 최하위라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최하위라는 말이 맞지는 않고, 미흡이라고 분류되었습니다. 지표 관리의 문제인데 저희 문화부 업무 중 문화예술 부분의 경우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요구되거나 예술에 대한 평가, 문화에 대한 평가가 조금 어려워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과관리에서 조금 부족하게 지적되었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더욱 노력해서 다음 평가 때는 상위권으로 들어가도록 지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김충환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작년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나왔는데 제작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량평가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평가에 정량과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 수학적 지표이고 정성평가는 그야말로 정서적인 측면인데 우리 문화부의 업무가 과학적으로 예산 투입과 산출이 딱 떨어지게 수학적 공식으로 뽑아 내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평가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설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작년 말 무역협회의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현장조사보고서’에 중복규제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관광산업의 무역 인정, 관광 유망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 규제와 관련한 20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복규제에 대해서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특히 건물에 대한 예술품 설치 문제에 있어서 올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 창고에도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지 그 밖에 동남해상이 해상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선박등기법상 선박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결국 그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전 국민이 노력해도 관광산업이 될지 말지 한데 규제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파산되면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니까 이런 제한이 없도록 좀 섬세하게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부 보도가 조금 잘못된 것이, 항만 내 창고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난해에 그 규제를 해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해상호텔 규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곧 규제를 해제할 생각입니다.

○**김충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장관님, 스크린쿼터가 FTA의 협상 종목은 아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협상의 전제조건이지만 영화에 관련된……

○**우상호 위원** 결국은 FTA 협상을 시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전제조건이지 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경우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럴 경우에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된, 예를 들어 대화채널을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다시 열 수는 없을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이미 통상본부장이 73일을 지키겠다고 미국과 합의했다는 발표 외에는 제가 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한미 FTA에서 문화 분야의 다른 협상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협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 간 협상과 WTO, DDA 등 모든 협상에서 방송광고 부문 등 문화 개방성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3일로 줄인 것은 전제조건이었습니다마는 협상을 시작하면서 어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단할 수 없고, 더군다나 통상본부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상호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결국은 경제부처의 주도하에 우리의 중요한 문화정책 중 하나의 기본정신이 상당히 훼손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FTA 협상에서 또 어떤 문화 종목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문화관광부나 국회의 문화관광위원들 모르게 또다시 양보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경부라든가 통상교섭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광부 자체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FTA

에서 다른 문화 분야에 대한 양보를 또한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앞으로 또 다른 종목에서 또 다른 양보를 해서 또다시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오간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년간 미국 영화 수입 총액이 1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1000억이지요.

스크린쿼터가 실효적으로 106일에서 73일로 줄 경우에 말하자면 33일 정도가 축소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미국이 영화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략 80억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80억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패권주의가 약화될 우려를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를 꺾음으로써 뺏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신중한 고려 없이 오로지 경제적 목적만을 가지고, 미국 같은 강대국도 문화를 돈으로만 환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와 협상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걸 정도로 문화를 중시하는데 우리는 너무 경제적 이익만을 국익으로 생각해서 문화적 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비판에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지난 8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 입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누차 했고……

○**우상호 위원** 저는 이 기회에 경제부처나 혹은 청와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정부부처 안에서 문화부가 할 일이 내부적으로도 문화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되어서 국무위원이라든가 경제관료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언제까지나 존재해야 되는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언젠가는 철폐되어야 되고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사실상 스크린쿼터제도 없이도 영화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발표한 정책들은 보면 저는 이것이 종합발전계획이 아니고 일부 보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광부 차원에서 그 이후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가 처음에 발표했던 것은 최초 제안이고, 영화계와의 협의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님께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면서 또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정부안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규모도 커지는 산업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도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대응대로 해 나가면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영화TF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같이 좀 협의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문광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각 분야별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고 하는 초기의 질의에 기초예술 분야의 활성화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두 번째 주요 추진계획으로 기초예술 분야의 진흥을 거론하셨는데 물론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만 문화예술위원회를 민간에게 넘겨 놓고 바로 닥친 문제가 결국은 재원의 안정성 문제인데, 지금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폐지되어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재원을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로 민간조직만 출범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이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정부재정의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문화관광부에 배정되는 복권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만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기금 구성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산업 분야는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예술 분야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고사시키겠다는 뜻이고 재원 대책이 없이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사실상 시장에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먼저 재원을 확보해 놓고 나서 민간에게 넘겨 주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문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쪽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두 번째는 한편으로 공공재원을 확보해서 기초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이 미룰 수 없는 과제 아니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연극인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3개월에서 6개월간 공연하고도 돈 한 톨 못 받는 연극인이 10명 중 1명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평균이 25만 원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 연극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열심히 관객들 많이 모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현재의 시장구조가 너무 열악하니까 결국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공공재원을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지제도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업자나 노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업급여라든가 민생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결국 예술인에 대한 민생 대책은 문광부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금고를 설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부처 내에서 기획예산처나 다른 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술인들 금고를 만들어 주면 기타 여러 분야나 계층의 금고가 또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적인 복지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각 부문별로 금고를 만들면 수없이 많은 금고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부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상호 위원** 항상 그런 논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올해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의논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관광업과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이 두 가지가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문광부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에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그들을 유인하는 책, 말하자면 고급 관광을 개척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제가 작년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자 면제 국가로 해서 추진 중인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계획을 안 세운단 말이지요. 제가 천정배 장관한테도 중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일부 불법 취업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외화를 뿌리고 간다면 그게 국가경쟁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중국 중에서도 특히 경제가 발전한 4개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큼은 비자를 면제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사증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분적 비자 면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검토하셔야지, 비자를 안 내 주어서 중국 관광객들을 늘리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저거해서, 어쨌든 올해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국가적 과제이고, 그 대부분의 분야가 문화관광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서비스관계장관회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불법 체류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인 고급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대강 연안 쪽에 한 1억 2000만 명 정도가 소득 1만 5000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인 고급 관광객인데, 그러한 중국인 고급 관광객들은 우리 한국을 거의 두 번씩 다녀갔습니다. 오면 리조트형의 개발단지에서 쉬기를 원하고, 골프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겨냥해서 관광레저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 장애인체육시설 활성화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텔픽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텔픽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방문의 해 성공은 역시 정부의 지원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지역방문의 해 지원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 통합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날이 국경일로 됐는데 국어 예산, 그리고 국어 활성화 대책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카지노 임대영업장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난해 7월에 동료 위원 23명의 서명으로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카지노영업장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갈 만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지노 신규 허가부터 영업장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청구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 들으십니까?

○위원장 이미경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손봉숙 위원 두 번째로 서면질의 및 자료 제출입니다.

스크린쿼터 관련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요청한 것에 이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을 국회에서 비준받게 하기 위해서 문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연예술 분야의 국고지원사업에 공정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평가 결과가 공연예술 분야 국고지원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질의와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2006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광부가 200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포럼이 향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국립중앙박물관 만들기를 위해서 당초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조사 또 설치계획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하루에 6회, 회당 150명을 한 시간 정도만 관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일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별 체험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향후 자금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 집행을 포함해서 자구방안과 업무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를 하시면……

○심재철 위원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십시오.

○심재철 위원 아까 극장요금 인상을 안 하고 5%를 한다고 했는데, 요금 인상을 안 하면 극장한테서 5%를 받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7000원인데 5000원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동카드사에서 혜택을 줘서 카드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극장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시네마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극장 측과 배급사 쪽 양쪽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7000원에, 지금 현재……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금 인상을 안 하면 결국 극장 측에서 5%를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극장 측뿐만 아니라 배급사와 5 대 5, 6 대 4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조정하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담이 국민한테 안 돌아가면 극장 측과 배급사가 공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셈이지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부담을 안 진다면 극장이나 배급사 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쪽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들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이동통신사 쪽하고도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사용했을 때 극장한테 5000원만 주고 2000원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여하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심재철 위원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는 대신 누군가는 5%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극장 쪽이나 배급사 쪽이나 아니면 이통사 쪽이나……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단 저희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극장이나 배급사 쪽에는 손해 보는 만큼의 어떤 페이버(favor)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그러한 손해 보는 극장 측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만큼의 어떤 수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미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 한덕수 부총리도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일단 양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제가 부총리의 그러한 약속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하튼 시민에게 부담을 추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윤원호 위원**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신문 중 하나인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의 일방적인 경영진 임명으로 인해서 노사 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요.

부산일보 노조나 직원들의 주장은 최근 부산일보의 적자에 대해 기존 경영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타결해 줄 수 있는 경영진을 좀 모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신문사 같으면 이런 논란이 있으면 노사 간의 대화, 타협으로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지켜보는 게 옳은 방법인 줄 알지만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부산일보는 정말로 일선 기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신문이라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정수장학회가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노조와 이사진 간의 불협화음은 부산 시민이나 부산일보를 보는 독자들에게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싶고, 또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무마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부산일보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고,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부산일보의 현 사태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부산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자세히는 모르지만……

○**윤원호 위원** 정수장학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사장님도 보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되는 경영 적자 때문에 노조에서 정말 능력 있는 외부의 경영진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노조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기들이 매도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원해야 될 방법이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유효한 수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제가 하여튼……

○**윤원호 위원** 부산일보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아 보시고, 노조들이 원하는 것과 정수장학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단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예.

○**정종복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복 위원** 장관님, 아까 영화발전기금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발표하기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종복 위원** 내용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합의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000억을 2007년에 1000억, 2008년에 1000억 국고로 한다, 그리고 입장료에서 5%씩 부과하는 것은 2007년……

○**정종복 위원** 발표된 내용이 그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신설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와 당정에서 합의 해서……

○정종복 위원 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스크린쿼터에 치중돼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영화산업에 대한 현황, 앞으로의 발전계획, 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들어서 보고서가 나오고, 또 예를 든다면 4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돈 얘기까지는 아직 다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영화산업의 향후 10년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보고서는 나와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매번 느끼는 문제가 경제부처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하고 재정부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거나 또는 문화부는 계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재정부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원에서 재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질의 도중에 정청래 위원, 정병국 위원, 이광철 위원, 천영세 위원, 이재웅 위원, 심재철 위원, 손봉숙 위원, 이계진 위원, 윤원호 위원, 박찬숙 위원, 박형준 위원, 김재윤 위원, 강혜숙 위원,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준비되는 대로 10분 후에 속개를 해서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소속 기관장 등을 소개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존경하는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문화재청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립고궁박물관의 개관, 문화재종합병원의 설립 등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확충, 문화재 분야 예산이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가 설립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은 앞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책에 임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청의 주요 과제는, 첫째 북관대첩비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 및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공동 복원사업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을 추진하여 민족의 자긍심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서울 성곽 복원 및 숙정문 권역 개방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도시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및 문화재보호

법제 등도 중점을 두고 정비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확대 및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차장입니다.

송인범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김홍렬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김창준 문화유산국장입니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입니다.

이동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입니다.

소재구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춘근 사적명승국장은 지금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저어새 보호를 위한 자연유산국제협약을 위해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업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관으로 하여금 올려 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정책홍보관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손봉숙 위원 현안업무만 보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세요.

현안업무 보고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는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추진,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성곽 복원 및 숙정문 권역 개방 추진입니다.

첫 번째,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어제 문화재청장님이 북한을 방문하셔서 가지고 북측하고 북관대첩비 인도에 관련해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은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한다.

행사 명칭은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으로 한다. 북측은 북관대첩비를 원 위치에 복원한 다음 그 결과를 남측에 통보한다.

행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2월 22일경 개성에서 협의한다.

남과 북은 복원된 북관대첩비 참관을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를 맺고 왔습니다.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입니다.

광화문 및 월대 복원은 지난 90년도부터 20개년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화문은 14.5m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10.9m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방향도 5.6°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대를 52m 앞까지 만들고 그 전면에 해태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화문보다 약 100m 정도 앞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연구 용역을 하였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 10월경에는 광화문을 철거하고 월대 복원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성곽 복원 및 숙정문 권역 개방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성곽은 전체 18.2km인데 현재 10.5km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7km 중 2.5km는 원형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2km는 주택이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복원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숙정문 권역하고 말바위 그리고 북악산 전체 부분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성곽은 2015년까지 완전히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원 방법이라든가 여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광화문 향후 복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패널을 만들어 와서 패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광화문 앞에 월대를 복원하는데 이 일대 전체가 광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광화문 앞에, 광화문이 14.5m 앞으로 나와서 경복궁 축하고 같이 맞춘다는 것이고 월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설치할 해 놓게 되고 해태는 여기서부터 32m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했을 적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해태는 바로 월대 앞에다 놓고 하면 교통 흐름상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상으로, 저희는 정부 청사에 있는 주차장을 파고라도 해태를 원위치에 놓고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6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복안인데 거기까지 했을 적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나중에 누가 해태를 다시 앞으로 놓고 하는 것은 훗날 하더라도 저희는 월대 복원까지를 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월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덕궁 돈화문 앞에 이와 같은 돌난간이 있습니다. 이 돌난간에 박석을 깬 것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궁으로 죽 들어가는, 궁궐의 진입로에 권위를 주기 위한 장치인데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앞에 있는 지하철 공사를 할 적에 거기를 들어내지 않고 터널식으로 했기 때문에 발굴에 들어가면 이 월대 자체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처음에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전 김성진 문공부장관께 제가 찾아가서 한번 여쭙어 봤더니 총독부 건물을 헐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것이 보기 싫어서 그것을 막는 방법을 최순우 관장에게 자문을 했더니 ‘그러면 광화문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을 그냥 하면 총독부 건물의 위용에 죽을 수 있으니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약간 확대되어서 콘크리트 건물로 한 것이라고 김성진 장관이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화문의 실제 도면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현재 있는 광화문하고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기초석이, 지금 땅을 발굴해 봐야 알겠는데 본래 있었던 초석에서 한 2m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전체 높이는 18.2m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2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광화문의 원 형상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는데 서울시하고는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했고 99년부터 해서 서울시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공문서로 확인을 한 것은 일단 이와 같은 식으로 광화문 앞의 월대 복원하는 것을 협의해서 기간을 너무 오래 둘 수 없어 가지고 광화문 복원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월대를 세우는 것까지, 56m 앞이 아니라 30m까지만 이렇게 차단할 해서 광화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청에서 이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에서는 기왕이면 문화재청에서 만드니까, 광화문 월대 지역이 너무 좁다,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시민공원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데 따라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화문이 광장의 중심이 아니고 광화문 옆으로 생기는 넓은 광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지금 관계기관 회의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다 같이 광장으로 조성된다고 그러면 1만 2000평의 광장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 철저한 고증과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자리, 미 대사관 자리 포함해서 종합적인 광화문 복원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식으로 신청해서 금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내년에 심사를 받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 그다음에 향후 문화재청의 지원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서류 전부 다 저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람들이 나가서 제주도하고 같이 제출을 했고요. 세계유산이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네 가지가 있는데 문화유산은 일곱 개, 기록유산 네 개, 무형유산 세 개가 있는 반면에 자연유산이 하나도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의 용암동굴은 학술적으로나 자연경관으로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세계에 알리는 작업 때문에 몇 차례에 걸친 지질과 식생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ICOMOS의 심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이 심각한데요. 문화재 매매업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만 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릉 입장료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문화재청장 유홍준 카드 배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가 됩니다.

○김재윤 위원 신한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모든 카드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자세하게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은 그 계획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서울을 새로운 문화도시로 만드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박형준 위원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는 실행이 되고 있지요, 성곽복원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발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문화재청이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비전도 좋아야 되지만 실행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합의에 바탕을 해서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될 때 그 과정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실행하려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운영과 이것을 시공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장 유홍준 시공은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형준 위원 서울시가 하게 되고 만들어지면 그 운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서울시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문화재청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조금 아까 서울시하고 어떤 공문을 보내서 교통에 대한 대안들을 서울시의 입장을 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그 계획 전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에 발표를 해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어떤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동안 죽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갑자기 깜짝 쇼하듯이 발표를 해서 문화재청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이 실제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나중에 운영 주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형준 위원 작년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자문회의 회의록에서도 몇몇 자문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장이 내놓은 계획안은 현실적인 문제인

관리·운영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7월달 되면 광화문 앞 30m 자리는 송편 모양으로 차선을 돌리고 광화문 복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대 복원 작업도, 발굴도 같이 할 계획인데 이것을 정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3, 4월에 할 것 같습니다. 4월달에 하게 되면 선거하고 휘말려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할 기회도 없이 정치적으로 휘몰릴 것 같아서 이것은 빨리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뜻이고, 발표하기 전날 저는 서울시에 가서 시장이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못 만나고 부시장 세 명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도시 등재를 위해서 선언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을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가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에어리어 설정이었는데 이 에어리어 설정에서 가장 좋은 곳이 18.2km 서울성곽 안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성곽이 18.2km 중에서 12km만 있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해결을 못 했던 것을 이번에 해결을 해서 정기용 건축가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성곽이 지나간 지대석을 화강암으로 깔아 가지고 라인을 연결하면 된다……

○박형준 위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된 것이지만 거의 자문회의한 것하고 내부 논의 몇몇 밑실에서 한 것 외에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희에게 보내 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답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고……

○박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론화 과정을 학계와 또는 어떤 다른……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은 4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연 것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선거가 없는 해가 없기 때문에 선거 시점을 피한다는 것도 굉장히……

○박형준 위원 일단 유관단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과정이야 소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결과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자속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표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전체의 약 10%인 260만 평 이상이 문화재 관련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도시 건설계획과 문화재 발굴이 충돌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청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문화재 조사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저희가 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파악한 것은 185건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박형준 위원 문제는 지금 학계가, 최병현 한국고고학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 정도 규모를 맡을 발굴단을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굴이 얼마나 걸릴지, 공사가 지연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실질적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그런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과 충돌이 났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책을 지금 갖고 있는지……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존지역으로 댔을 경우에는 그 자리가 어떤 지역이 댔든 보존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30개의 발굴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박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확인하



겠습니다.

종묘재래악의 원형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그간 어떤 활동을 하신 게 있는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아주 짧게……

○문화재청장 유홍준 국립국악원 김철호 원장하고 같이 공동 심포지엄과 시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증받는 것을 하자, 둘이 위낙……

○손봉숙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훼손된 덕수궁 돌담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현재 보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중간 중간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12m까지 공사가 완료됐고요. 전체는 129m인데…… 영상 5도를 유지할 때 할 수 있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할 테니까 확인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야외에 있는 석조문화재 관리·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보호각에 둘러싸여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사진 좀 주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다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통풍도 안 되고 오히려 온실 같은 효과가 나서 온도가 상승이 돼서 균열도 발생하고 또 유리로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존·보수작업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만약 완벽한 원형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원형은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보존하고 터에는 모형을 설치하

거나, 또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레이저 복원을 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석조 문화재 보존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종로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원각사 앞에 가다 보면 아무리 보존이 잘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흉측한 유리장을 놓고서 몇 십 년을 살 것이냐 했을 적에, 저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리관을 씌워서 통풍장치 한 거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보존은 좋다고 하는 것이 이태령 박사 애기로…… 산성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과 비둘기 똥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보존한다고 해서 감옥같이 씌워 놓고 사는 것이 옳느냐 하는 것은 보존철학에 관한 문제고 손 위원님께서……

○손봉숙 위원 문화재가 봐서 즐거운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요.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건물이 된 것을 저희가 한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봉화 북지리에 있는 마애불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관계자 심포지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 고구려식 벽화·고분 횡렬식 석실묘라고 부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고분이 남한지역에 유일하게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순흥에 있는 어숙묘……

○손봉숙 위원 그렇습니다. 순흥에 있는 어숙묘 주변 고분인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현재 무모한 산지개발로 1000년이 넘도록 전해 온, 5세기·6세기 경의 횡렬식 석실 분·묘하고 횡구식 고분 등 수백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발굴해서 현장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소주 뒷병까지 굴러다니는 상황입니다. 밤에 와서 몰래 술 먹고 병을 버리고 간 건데……

이렇게 해당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은 더 이상

혜멸을 막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정밀조사, 영구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분의 정확한 숫자, 또 고분의 성격이나 고분의 규모, 구조 등을 파악하고 더 이상 인위적인 훼손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고학 전공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 정밀조사,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어숙묘 구역은 저도 보고를 받고 보니까, 현재 사적으로 진행된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영주시하고 주변 사적지 라인을 확대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능 관람안내 지도위원을 70세 이상으로 응모를 시켜서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장이 하신 일 중에서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손봉숙 위원 노령화 사회에 대단히 모범적인 업무 발굴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아울러서 사회의 또 다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도 고용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문화를 향유하고 동시에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문화재적 가치를 담은 국보 재지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보 1호, 보물 1호와 같은 지정번호를 일반 국민들이 단순히 관리번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가치에 대한 서열로 인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보 1호, 보물 1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문화재의 변경을 건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국보심의분과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다음에 정부 업무 평가결과 고객만족도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문화재청은 그냥 ‘보통’ 정도로 받으셨는데, 고객만족도를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사적 현상변경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민원 문제 때문에 저희 문화재청 민원

이 경찰청,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부서가 돼서……

○손봉숙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양동 민속마을을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그게 600년 이상 된, 몇 안 되는 전통문화마을입니다. 이 마을 앞으로 새로 철도가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 계획대로 철도가 지나가면 전통마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을 지나가서 학교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을의 중요시설인 펌프장, 전시관, 안내소, 정보교육실, 마을회관, 주차장 같은 게 들어설 예정지에 10m 높이로 교각을 만들어서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철로를 이동하거나, 터널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건설교통부에서 올라와 있는 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철도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철로 계획을 문화재청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 이걸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13호 강릉 단오제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으로 UNESCO에 선정돼서 또다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에 강릉 단오제에 참석해서 강릉시민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단오제 핵심 행사들의 구성원들이 고령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가 끊겨 가고 있

습니다. 관노가면극이나 강릉 농악·농요, 이런 것들이 일부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겨우 전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문화재청 역시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대토론회에서 청장님이 하루종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야기를 죽 들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전수조교들, 이수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그다음에 공연분야와 공예분야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차이가 있으니 그걸 나누어서 두 번 더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세 개의 안을 종합해서 아주 획기적인 안을 만들자 하는 데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은 대개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전승체계에, 소위 무형문화재에 많은 불협화음·부작용으로 나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쪽이기 때문에 전수조교들, 이수자들과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혜숙 위원** 공연이나 공예품 이런 것들의 관광상품화,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의 소재로서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강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문화관광부에서 갖고 있는 법안 중에 문화상품에 대해 등급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의 리모주처럼 와인이 나왔을 적에 등급을 확실하게 해서 전통문화상품을 국가가 보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칠기 장인이 만든 명함 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국가가, 아니면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재단이 등급 규정으로 A급인지 B급인지 해

주면 그것이 잡다한, 다른 데서 온 것과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문화재청뿐만이 아니고 관계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인사동에 있는 싸구려 관광상품을 정리 못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법적 토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 업무 협의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월 19일에 모 일간지에서 ‘청와대 경비구역서 굿판 연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숙정문 권역 개방을 앞두고 정월대보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길놀이, 경기민요, 배연신굿, 판소리 등 여러 가지 전통 민속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보름날 숙정문 개방과 북악산 개방을 위한 행사 준비를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전통적인 대보름 행사를 하는 것보다가 또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액막이굿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무형문화재 김금화 할머니를 모셔 가지고 액막이굿을 하는 안하고, 연날리기 안하고, 부럼 까기, 이런 행사 안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언론에 노출되면서, 김금화 할머니가 액막이굿을 한다고 하는 것만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니까 ‘청와대에서 굿을 한다’라는 걸로 돼 가지고……

저희로서는 하고 싶었는데, 당국자 입장에서는 여론에서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왜곡시켜 놓은 걸 그냥 그대로 했을 적에는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연날리기만 하고, 김금화 할머니는 섭외까지 해 놓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데요. 다른 적당한 때에 김금화 할머니를 모시는 행사를 저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취소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

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어서, 연날리기 행사라는 더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넣어서…… 또다시 여론 속에서 구설에 휘말리기 싫다 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강혜숙 위원**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가뜰이나 끊어져 가는, 소중한 세시풍속을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좀 반발이 심하더라도 열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서 아주 악의적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청와대 경비구역서 국관 연다’, ‘청와대에서 국 공연 계획’, ‘교계 미신조장 강력 반발’ 이렇게 뽑고, 또 그 다음 날 종교신문과 일간지들이 ‘국관 당혹스럽다’, ‘반발 거세 국 철회’ 이런 기사를 내고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문화재청 단독 행사였다면 저는 소신껏 강행을 했을 텐데요. 이 행사 자체가 경비구역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을 기약하고 그냥 연날리기로 대신했습니다. 꼭 한번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정말 아쉽고, 앞으로는 소신 있는 정책 결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서울을 UNESCO 역사도시 등재를 추진하는 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등재 주체인 서울시와의 협의에 관한 박형준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을 ‘긴급 발표’라고 하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북악산 개방 시점 두고도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오해를 살 만한 점이 없지가 않습니다.

첫 개방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앞둔 2006년 4월, 그리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07년 10월이 완공시점이 되는 것,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만 볼 것인가, 이것이 지나친 오해일까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유 청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결정에 의해

지난해 10월 1일 북문인 숙정문 일대 개방에, 이번에는 북악산 전면 개방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유 청장께서는 상당히 문화재 전문가이신데 대통령 결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자세가 꼭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일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준공식과 새물맞이 행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정치적 행보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방송에서는 이것을 중계하지 않아서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시민을 위한 훌륭한 결정인데 대통령의 결정도 돋보이게 하고 서울시의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도 돋보이게 하는 윈-윈으로 바로 그날을 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답변할 시간을 1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찬숙 위원** 박형준 위원 질의에 관한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복권기금을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데 문화재청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에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12개 사업 가운데 비지정 개인 소장 문화재 특별 전시사업을 비롯해서 법정 지원 목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또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 전시경비를 지원하는 등 일회성 행사 사업에도 복권기금 78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분요구를 받으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박찬숙 위원** 복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문화재청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직 저희한테까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난 3년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이라는 표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한 문화재청 역시 문제가 심각합니

다. 제대로 된 곳에 복원기금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궁 알리기’와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궁을 알려야 되는 것하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딜레마 속에 있으시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해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촬영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촬영이 허가되고 불허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궁·능·원 일반 관람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관람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궁능촬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남자’의 경우 2004년도에 촬영신청이 들어왔는데……

○박찬숙 위원 답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궁’은 가상극이라 안 된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된다, ‘음란서생’은 괜찮다, ‘왕의 남자’는 역사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궁이나 능에서의 촬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궁능관리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최소한 어느 기관에서 신청했고, 어느 정도의 촬영 수입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한 해 몇 건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3건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빌려 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희루 만찬 건 때도 왜 문화재청이 단독으로 하느냐, 심의위원회를 왜 안 두었느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었는데 문화재청이 판단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하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번에 짚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어떤 것은 역사성이 없어서 안 되고, 어떤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전혀 기준

없이 촬영허가를 했다, 불허했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하고 당해 유적 관리기관으로 이원화된 접수창구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박찬숙 위원님 질의서를 계기로 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23건, 2005년도에는 35건의 촬영장소 사용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런데 당해 유적 관리기관으로 바로 들어간 경우는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 최근 3년간 한 작품도 없었고, 반대로 문화재청으로 접수된 작품은 3년간 세 작품으로 ‘궁능촬영심의위원회의 심사작’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일원화하실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일원화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박형준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난달 20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생활유적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발굴조사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서 모두 185개소의 유적지가 확인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발굴기관이 들어가서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발굴을 하고 보존조치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보존조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대로 할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문화재청의 정상적인 발굴절차가 시행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7월까지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시굴과 발굴작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우고 시굴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발굴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려는 부서가 결정되면, 사용자가 결정되면 사용자가 발주하는 형식으로 해서 발굴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마산에 있는 진동지구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인데, 다 해 놓고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허가해 놓고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결정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봐 문화재연구소에서 사전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기관으로 고려매장문화재연구소가 들어갈지 중앙매장문화재연구소가 들어갈지는 그 땅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박찬숙 위원 땅을 사용하는 부서라는 그 말씀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부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건설청의 계획보다 앞서서 문화재 보존의 정신과 역사의 발굴이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을 선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하도 복잡해서 저희 청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7월까지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늦추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늦추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에게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못 합니다.

○박찬숙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덕수궁 미국대사관도 문화재청 때문에 못 짓고 용산으로 밀려갔는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문화재밖에 없듯이……

(웃음)

○박찬숙 위원 수도의 분할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도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찬숙 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유구한 역사와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발굴이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서 선행된 이후

에 그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유홍준 청장의 약속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들 하시네요.

방금 박찬숙 위원님의 언급이 있으셨는데 평택 팽성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발굴조사 방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어렵습니다.

○천영세 위원 지난번 미 대사관 옛 덕수궁 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아마 정치적인 고려, 압력 등 여러 가지가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일관되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새의 동지를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새 동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먹고사는 들판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오니까 거기까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연기념물하고 민속자료하고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영세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오늘 질의의 중심 주제가 서울역 사도시 조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이 부분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기구도 만들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지난 1월 25일에 발표하고 나서 찬반 논란도 굉장히 뜨겁고, 중요성 면으로 봐서도 좀 광범위하게 문화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함께 공론화시켜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까지 광화문 앞 광장에 관한 심포지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장 되기 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차도를 파 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광장을 만들자는 안에서부터 무수하게 많은 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한 안을 짜는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면 월대 복원을 못 합니다. 문화재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니까 월대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 문화재청만 하면 앞에 있는 월대 복원으로 끝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나오면 문화관광부와 미국대사관, 시민공원까지의 광장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천영세 위원**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사이의 주관 단체의 문제보다도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되 전문성도 있고 관심이 있는 문화단체를 포함하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서울성곽 복원과 관련해서 민간 피해는 없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없고요, 이미 멸실되어 가지고 복원하기 힘든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닥에 표지석을 해서 이어지는 방법으로 해서, 트레이스 레스토레이션(trace restoration)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지고 민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문화재청이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 53개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을 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등록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조선시대 왕릉과 원의 경우 예술적 측면에서 독창성이 뛰어나서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 뒤이기도 한데, 내국동 헌인릉의 경우 옆에 국정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36만 평 가운데 13만 5000평을 지난 90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중요한 사적지를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의 새로운 청사 자리로 내주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물론 유 청장님 같은 경우 어디서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수용하지 않겠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럼요.

○**천영세 위원** 그런데 유홍준 청장만 계속 문화재청장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해서 옛날 권위 정부 시절처럼 누가 사인을 해서 목장 하려고 하니까 40만 평 떼어 줘라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뺏어가듯이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서삼릉 지역은 지금 농림부하고 40만 평을 되돌려받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서오릉의 기무사학교 그 문제도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당장은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1차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찾는 쪽으로 하지……

○**천영세 위원** 그쪽은 그런데 헌인릉 그 자리에 있는 13만 평이 넘는 국정원,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닌 국정원에서 이것을 내놓겠어요? 이후에 이것을 그냥 청장의 어떤 개인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안전장치를 위한 제도 마련 같은 것을 깊이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당에 요청도 오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94년부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정대협이 모금한 게 2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독립공원 내의 부지 100여 평을…… 좀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게 서울시가 그쪽에 제시한 거지요?

○**천영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현상변경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리고 이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을 짓기 전에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부결받지 말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받으라고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 줬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정신대기념관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쪽으로 지원을 받아야 예산항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서울 역사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광화문 주변 복원계획이 추진된 것은 아마 여러 차례, 오래 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0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본은 15년 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이거 서울시만 하더라도 1994년, 2000년, 2004년, 이렇게 조성계획 발표했다가 그냥 조성계획만 발표되고 실천은 안 되고, 추진 안 되고, 문화재청도 2002년도에 기술용역 준 적 있으시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추진된다고 했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추진이 안 된 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찌 됐든 간에 금년 7월에는 광화문 앞에 30m 펜스 치고 땅을 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만 발표되고 시행하는 모습을 못 보는 것을, 또 여기에서 지연했다가는 마지막 2009년에 광화문 20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시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면밀히 여러 차례 해서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7월에 땅 파기 시작하고 지금 현 광화문이 철거될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완성이 언제 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8년에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말 되면 새로 짓는 광화문의 윤곽을 보실 수 있고, 월대 복원지역의 발굴조사가 끝나 있을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7월에 땅 파기 시작해서 2008년에는 작업이 다 마쳐진다는 얘기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광화문을 하는 것 자체는 금년 7월에 시작할 겁니다.

○노웅래 위원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청계

천 같은 경우에도 원형과 다르게 복원되고, 또 서양식 조형물이 다르게 들어서서 역사적 이미지를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또다시 서울 역사도시 조성 역시 전시성,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번에는 원래 모습대로 제대로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광화문의 경우에는 되도록 원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었고, 사실 청계천의 경우에는 ‘복원’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은 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건’이라든지 ‘개건’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적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경복궁하고 광화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복원이기 때문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입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청계천이 복원이 아니고 중건이나 개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할 당시에 계속 의견 제시를 안 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주장하는 팀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장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한쪽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때는 제가 문화재청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노웅래 위원 아니, 문화재청이 지금 유 청장님 계실 때만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중건이나 복원이나 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의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교통 혼잡도 굉장히 우려되는데, 서울시가 계획했던 광화문 전면 공간이 1800평이고, 문화재청이 지금 한 2배 정도 되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한 것은 4200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안에 동의해 온 도면을 저희가 받아서 교통도 최대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로서는 라인을 그릴 적에 각도에 따라 가지고 시계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곡선이 완만해지기를 원하는 게 교통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태의 경우에는 양보를 해서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경찰청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정을 내려 준 것을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역사도시 조성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랑 어떻게……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시에 저희들이 내려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7년에 걸쳐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돼서 사실 서울시가 들어오면 서울시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예산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느려서 서울시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어차피 서울 역사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일정 부분은 서울시도 분담을 하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요. 저희가 50~70%를 내고 매칭펀드를 서울시가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관할권 분쟁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관할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게 합니다.

○**노웅래 위원** 관할권을……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모든 문화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마포 상암동처럼 골프장 만들어 놓고 서울시랑 체육진흥공단이란 서로 소유권이 내 거라고 계속 해서 지금 골프장 오픈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성곽 자체의 부동산은 산림청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 서울역사가 국가문화재 사적 284호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소유권 협상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협상이 아니고 정부에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만들면서 행정 미스가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가 되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를 국가기관으로 넘겨 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재청으로 와야 되는 건데 철도청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시설 투자를 이미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청에서 어찌 됐든 서울역사는 문화재청으로 넘겨라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에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용도에 있어서는 영화관으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이미 심의를 다 받았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애매하게 얽혀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행정 미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정리되는 데는 문제없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문화재청이 정부 업무 부문별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즉 민원서비스 만족도나 기관행정 만족도가 유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자꾸 떨어지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재웅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영도다리 문제라든지 또 마산 진동에 있는 것, 춘천 신매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의 경우가 과감하게 지자체나 민원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줘 버리면, 종래에 있었던 식으로 받아 줬으면 이게 민원사항에 ‘미흡’이 안 나올 텐데 제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은 끝까지 따져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민원처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미흡’, 그것도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도 아닌 문화재청이 왜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으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 문화재청의 민원사항은 역사적으로나 양으로나 그런 사찰기관 못지않게 이렇게 현상변경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조 40년에 일어난 민원을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이재웅 위원** 영조 40년에 일어난 민원은 어떤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파평 윤씨하고 청송 심씨하고 윤관 장군 묘 앞에 서로 ‘내 무덤이다,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이장하라는 건데, 그래서 지난 번에 청송 심씨 종친회장하고 파평 윤씨 종친회

장을 파주 윤관 장군 묘 앞에서 만났는데 세기의 대타결을 봤습니다. 청송 심씨가 양보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면 잘 한 일인데, 문화재청은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냐고 했을 적에는 지금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아니, 민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해결이 늦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닙니다. 절대……

○**이재웅 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이 많다는 그 자체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지요. 지금 절대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저희 정말 억울합니다.

(일동 웃음)

그러니까 민원이 온 양에 비했을 적에는 처리를 굉장히 잘 했는데 워낙 절대치가 많으니까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정부 업무평가 기준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기준이, 하여튼 참 억울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드신 게 부산 영도다리 문제도 바로 직접 예로 드셨는데, 그것도 민원에 들어갑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런 것들이 조사할 적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점수를 낮게 받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영도다리 문제는 영도다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지요.

○**이재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거기는 시니까 1건이지만 마산 진동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이 되니까요.

아무튼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많다

는 것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부터 평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런 평가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난번 장차관회의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영조 40년에 해결 못 한 것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이 저렇게 민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인식하는 계기는 됐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냥 웃고 계기로만 삼고, 그런데 평가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문광위에서 국정감사 받으면 왜 예산 이월이 많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1년 단위이고 계약하는 것은 1차년도에 30%, 다음 해 50%, 마지막에 20% 하니까 저희는 30% 집행한 게 100% 집행인데 왜 70% 안 했느냐고 야단맞습니다. 10월에 또 맞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가의 내용에 민원인 요망, 혹은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처리 태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런 겁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 태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민원인들이 불친절하게 느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왜 불친절하게 대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그 점을 몇 가지는 시정했는데, 예를 들면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지역구 쪽에서 감포 쪽으로 가는 도로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4년 동안 서류 오면 문화재청에서 참 무뎌뎌하게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문화재청 직원 셋이 경주로 내려가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되는 라인을 그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미흡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매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친절하고,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도 그렇고 동래도 그렇고 문화유산이나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문화재위원들의 답변이 ‘내 눈에 훤히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고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히 따져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보다는 좀 더 설명을 한다든지 성의를 보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성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태도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제가 신경을 써서 좀 더 친절한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방식도 다시 한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를 나갈 때 저희 청의 직원이나 연구소 직원이 같이 가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청장님, 영도다리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부산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영도다리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이나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입장처럼 영도다리는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가치가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권고하는 바람에…… 영도다리가 이재웅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고 영도구입니다. 영도구민이 20만 정도 되거든요. 다리 이쪽에는 자갈치시장을 비롯해서 남포동, 광복동 등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도다리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새 다리 만들고 영도다리를 도개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도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개도 못하게 6차선으로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좋은 보존이 아니고 이것을 도개식으로 다시 열게 해서 배도 다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는 이것이 6차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8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해 놓게 되면 지금 그대로 고착하는 방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가 되니까 부산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부산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드리겠다는 뜻이지 이것은 문화재니까 부산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거든요.

**○윤원호 위원** 지금 4차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수하고 수리하기에는 아주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8차선으로 늘리고, 도개교로 만들고 난 뒤에, 원형 복원을 한 뒤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산시나 영도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부산시에서 원하는 안이 그것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머리를 있는 대로 짜서……

**○윤원호 위원** 그런데 다리 폭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영도에 20만 구민이 사는데 다리가 그것하고 2개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롯데 들어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문제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부산에 자율적으로 넘겼더니 역시 또 부산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가 아니고 나뉘져 있어서 지금도 부산시에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영도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선 나오기가 불편하니까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문화재가 나오면 좋아해야 될 텐데 이것을 원수 보듯이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 그것을 8차선으로 해서 도개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하는 방식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 부시장도 여러 차례 청에 오고, 저도 가고, 이재웅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는데 어쨌든 영도다리 됩니다. 되는데……

○**윤원호 위원** 복원하고 난 뒤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습니까? 선후를 바꾸는 것이 어떨습니까? 이재웅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산시에서 원하는 것도 복원 후에 문화재로 지정하기를 원합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제일 깔끔한데 법적 절차로써는 약간 걸림돌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하고 시장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면 어떨겠습니까?

○**윤원호 위원** 그것이 영도구민의 가장 큰 민원이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 자신은 지금처럼 영도다리가 불박이가 되어서 다리 위로 송수관이 지나가고 하는 그것을 문화재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개식 다리라고 하는 것이 영도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개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해 줘야 하는데 문화재 보존에 있어 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윤원호 위원** 부산에서도 원형복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요. 다 도개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부산시민 중의 일부 또 언론기관 해서 찬반이 나오는 함수가 좀 복잡합니다.

○**윤원호 위원** 그래도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의 민의를 모은 것이니까 부산시의 입장대로 복원 후에 문화재 지정으로……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안 하고 부산에서 지방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항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

이라는 것이 좀 복잡해서 어디에서 일관된 안을 갖고 와서 제가 도장 찍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가서……

○**윤원호 위원** 남포동, 광복동 쪽이 롯데가 107층 이런 건물을 세우면 복잡하기가 말도 못할 것 이거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8차선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원호 위원** 16차선을 하든지 바다를 메우든지 해야 될 지경인데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하면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을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상변경을 하면서 원형을 왜곡했다고 반대하고 들어올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묘안을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따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영도다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서울 역사도시 복원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금화 선생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김금화 선생의 서해안 배연신궁이 있고 동해안 별신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형문화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수관에 지원도 해 주시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공연은 한번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공연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서울 역사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부산은 영상문화도시,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광주 는 아시아문화도시,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그 개념하고 서울역사도시 개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도시는 유네스코 역사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울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

로 교통문제가 제일 큰 관심이 될 텐데 교통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다고 했는데 기존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체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등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고 하는데 교통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경찰청에서 저희에게 보낸 회신에 의하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안은 무리 없다는 판단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넘겨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책으로 도난방지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두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동산문화재 첨단 도난방지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에도 올해까지 지정문화재가 4건에 15점, 비지정문화재가 7건에 330점으로 여전히 많이 도난당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말로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도난당하고 있는 문화재는 대개 기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난을 안 당합니다. 당해도 무슨 장치가 있는데 문중에서 갖고 있다든지 서원이나 사찰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보존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77개 완공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난 방지를 염두에 두고 유물전시관에 하는 것이고 매년 도난방지시설을 20개 소씩 하는 것은 유물전시관을 지을 수 없는 곳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로서도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심재철 위원 한쪽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절도, 도난, 도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난정보기 설치현황을 보면 2004년보다 2005년이 오히려 줄었어요. 도난정보기 같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지시스템도 있겠지만 도난당한 다음에 그것이 유통이 될 텐데 유통 내지 반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올 가을 국감 때 또 지적을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도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고를 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암거래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다 알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난, 구난, 도난을 현재 인원이 게 정도에 있는 것을 방재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랄지 허술한 데가 많이 터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킴이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다든지 여러 가지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역량을 이 부분에 동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도시 지역 내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청이 동의 안 하면 작업 진행이 안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현재 입장은 시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시굴해야 될 지역은 시굴해야 됩니다. 시굴뿐만 아니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시굴과 행정도시 건설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문화재가 정말 중요하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본래 거기에 건교부 건물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이 중요한 유적이 되어서 보존되어야 된다 그러면 건교부 건물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7월이지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내년 6월에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습지만 해도 아직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강해서, 나중에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강을 할 생각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계산으로는 30개 조사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을 투입하면 길게 보면 3년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저희들은 계산을 해서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과장된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 온 자세한 것을, 또 저희 김교년 학예관이 국토관리청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일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는 부분들 잘 유념하고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서울역사도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역사도시조성계획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는데 서울시를 배제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많은 공청회도 했었고 연구용역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참여를 한 거여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가장 우려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5년 8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서울시에도 알려줬습니까? 서울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이 전부 서울시 출입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협의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 국장이 항의를 해서

그쪽에 다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서울시와의 관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고,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광화문 복원과 함께 현판도 새로 만들 계획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럼요.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난해 4월 문화재위원회는 '광화문을 원형대로 복원하면 그때 가서 현판을 함께 교체해라' 이렇게 결정했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체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제시된 안이 지난번에 세키노 다타시 씨가 촬영한 광화문 사진의 현판 글씨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역 작가의 새 글씨로 만드는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를 보십니까, 청장님?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도 야당 원내대표님이 오셨는데……

(일동 웃음)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세워진 안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위원회 일인데요, 같이 안을 찾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가 심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교체하기로 결정은 해 놓고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 시안을 놓고 고르고 그때는……

○**이경숙 위원** 현판이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광화문 건물에 해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체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판과 문짝, 공포 등 주요 부재들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옮길 것인가 아니면 광화문 전체…… 그것도 역사이지 않는가, 1970년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오히려 해체해서 옮겨 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요, 그 밑에 있는 돌로 되어 있는 문루는 우리가 재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런저런 것들을…… 밑에는 아니어도 그 형태는 그대로 보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60년대의 상징이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위의 것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부서지게 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재들에 대해서는 고궁박물관에 넣는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재만 그냥 놔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도 박물관에 두면 절대 안 없어지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리고 광화문 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복궁 동편 주차장 같은 것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관람객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 너무 산만하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보고해 드리려고요.

○위원장 이미경 집중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림을 제시하며)

동편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것이 경복궁 복원 계획에 의하면 흥례문과 광화문 월대가 있는 이 옆으로 협성문이라고 하는 이 일대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원이 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건축가 조성룡 씨가 설계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9년 완성되는 이 경복궁 복원과 함께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건물을 격조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복궁에서 역사적인 일이 뭐가 있었는가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있었던 훈민정음을 만든 일,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청난 것이 그 경복궁에 있었던 것, 그다음에 승정원일기라

든가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역사도시를 만들 때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꿈이, 이런 서울의 도성, 고궁, 청계천, 사대문을 세계역사도시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크나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청장님 한번 뒤에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배병오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냥 뒤를 보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경숙 위원 오늘 아침에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문화재청의 절대 인원수에, 더군다나 상위 직급에……

○이경숙 위원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문화재청장님이 그런 것도 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회암사 소유토지 출토문화재 소유권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조계종 손을 들어준 것 알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이 판결이 나게 됨으로써 사지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재심에서 저희가 이겨야지요.

○정종복 위원 아니, 일심에서……

○문화재청장 유홍준 일심에서 졌지만 이심에 가서 저희가 이겨야지요.

○정종복 위원 글썄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급한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사지라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땅을 보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회암사요?

○정종복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지……

사지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종복 위원 사지의 개념이 뭐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역사 유적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십니까, 절이 있었던 자리를 얘기하십니까?

○정종복 위원 절이 있었던 자리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종복 위원 그러니까 절이 있었던 그 부근 자리와 폐허가 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찰 있었던 자리를 얘기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폐사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종복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숫자를 파악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파악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왜, 파악을 좀 안 하고 있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래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숫자가 지자체에서 다 파악해서 올라와야지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정종복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조계종에서는 폐사지 현황에 대해서는 2100군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된 것이 없어요.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국의 사지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정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은 현재 104군데라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전국 사지 중에 발굴이 진행되어서 지금 유물이 출토된 곳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

○정종복 위원 다른 것은 다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은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질의로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2100군데 폐사지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발굴 중에 있는 것은 5%에 지나지 않고, 전체 사지 중에 발굴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보다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절대다수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도난이라든가 도굴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폐사지 중에서 감은사지라든지 창림사지, 용장사지 이것이 다 폐사지거든요. 이런 확실한 문화유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정종복 위원 하여튼 전국에 사지가 몇 군데 있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지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전통사찰보호법으로는 사지 전반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지의 보존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출토되는 문화재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논쟁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누구라도 나서서 이제는 사지를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저희가 폐사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고 이것을……

○정종복 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보존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리고 이것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조계종이라든가 다른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보존·관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



다고 보고, 사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종복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경주시에 있는 대표적인 민속마을인 양동마을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에 있는 10m 높이 철도건설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네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철도 공사 노선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직원을 통해서 공문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목이 “월성 양동마을 울산-포항 간 전철건설 불허통지” 이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저도 보았습니다. 보고 잘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동 웃음)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정종복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양반마을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자원이고 중요한 민속마을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앞에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인지……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으로 하면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안 걸어 주고 그냥 진행되었으면 아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양동마을 관련 예산을 보니까 퇴락 가옥 보수 등 명목으로 한 33억 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민속자료의 경관을 훼손하는 철도시설이 건설되는데도 문화재청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문화재청도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추후에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에서 국토 이용에 관해서 허가를 할 적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영향평가를 동시에 한 다음에 허가해 주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허가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지 말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까지 한 다음에 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제기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지금 불허통지를 하셨는데 불복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 변경해서 문화재청에서 재신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수정 변경해 올 때도 혹시 이런 점이 걸리는 것이 없는지 예의주시하셔서 경관이 잘 보호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통상 이렇게 되면 거기에 서부터 50m 정도 떨어져서 거의 같은 것으로 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어차피 전철은 놓아야 되는 것이니까 전철선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끝까지 좀 확실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오늘 보니까 청장님이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택 지역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현재 한 4개소의 문화유적지가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서 보호 중인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무려 1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유물산포지 3개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방부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아니고, 그 문제도 제가 청장이 된 다음에 정부기관에 요구했던 몇 가지 중 하나인데, 30개 발굴기관을 발굴공단으로 만들어서 문화재청이 직접 해도 예산은 똑같이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직접 투입하게 되는데 지금은 공단이 아니니까 사용자가

발굴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발굴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광철 위원** 결국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문화재의 보호·발굴이라기보다는 문화재를 훼손시키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기관의 이사장들이 다 고고학과 교수나 박물관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광철 위원** 소위 국방부의 이해와 문화재청의 이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국방부는 이전 터로서 확정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해가 아니라 희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쪽은 유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있기를 바라고……

○**이광철 위원**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광철 위원** 있어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발굴조사기관을 국방부가 선정하는 것과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개 기관 중에서 어느 곳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30개 기관의 경우 적어도 학자적 양심을 지킬 것입니다.

○**이광철 위원** 30개 기관의 학자적 양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소위 시행기관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시행기관에서는 손을 못 댅니다.

○**이광철 위원** 문화재를 보호할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시행기관에서 선정한다는 것 자체조차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옛날에 88고속도로나 이런 데 공사할 때처럼 부실조사기관이 들어가서 대충 하고 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라고 약보고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태가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광철 위원** 소위 문화재가 나오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 문화재 발굴기관을 선정하라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할 기관이 아니니

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닙니다.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조사기관이 열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할 뿐이지 어디는 문화재 발굴에서 좀 너그럽고 어디는 뻑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건설사업 시행주체들이 발굴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문화재청이 발굴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차이가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시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30개 발굴기관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역사가 오래된 곳이 중앙문화재연구원이거든요.

○**이광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발굴기관에 대한 내용도 잘 아니까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것과 일반 건설업자가 선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광철 위원** 천연기념물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후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철 위원** 왜 재심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지표조사에서 이미 보호 조류 종이 나왔기 때문에, 17종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황조롱이가……

○**이광철 위원** 서식지 주변이라든가 식생과 관련해서 마을숲 자체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둥지만 보호하고 숲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조롱이와 부엉이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광철 위원** 살지 못하게 하면 나가라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논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광철 위원** 그래도 소위 천연기념물이 있는 숲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재심의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좀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식생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

○**이광철 위원** 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 터와 관련해서 등지만 보호하고 살고 있는 숲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이해를 너무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분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천연기념물 조사와 관련해서 황조롱이의 경우 현재 등지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 천연기념물 실태를 더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이광철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걱정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2025년까지 완전 복원할 계획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9년입니다.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광철 위원** 그러면 민속박물관의 경우 2009년까지 철거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야 되는데 용산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광철 위원** 민속박물관의 경우 주요한 사업 내용으로 이전계획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거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9년 경복궁을 완성하는 데는 민속박물관 철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민속박물관이 이전하게 되면……

○**이광철 위원** 그런데 2009년에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희망이지요. 2009년에 되는 것이 45% 복원이거든요. 그것으로 20년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청장님은 2009년까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민속박물관에서

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소위 4200억의 돈을 들여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장님의 의지와 내용은 좋지만 용산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소위 중앙박물관의 경우 이전 터를 확정하고 이전하는 데 12년이 걸렸는데 민속박물관의 경우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좋지만, 2009년에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관계부처하고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언제 2009년에 철거한다는 발표를 했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가요?

아마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2009년에 경복궁 복원이 45% 완성되는데 민속박물관의 경우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민속박물관도 이사를 가는 것이 희망이고, 용산 계획이 시행되게 되면 그때 민속박물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뜻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 계획이나 철거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지난 1월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로 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봤습니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덧붙여서 ‘지금처럼 유사한 국가기관이 분립해서는 국민 세금을 낭비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합한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보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공감을 표시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청장께서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도가 나가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얘기가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건무 관장하고 이영훈 학예연구실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이야기도 있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합치는 것과 관련해서 양자가 의견을 합치해서 그 안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주어서 시행해 가는 것이 순서가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1주일 후에 이건무 관장이 저희 청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동의하는데 박물관 안에 이것이 좋다,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동의한다고 답을 주기가 힘들다, 또 이것을 공론화해 놓으면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본부에서 TF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이 합동해서 의견이 일치해서 합치는 것으로 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배종신 차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차관보도 같이 있었는데,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죽 반대를 해 왔지만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박물관 간부급의 경우도 행정직이나 학예직이나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낙관적으로 박물관에서 동의할 줄 알았는데 동의안을 주지 않아서 진도가 조금 안 나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배 차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침이 있어야 밑에서 TF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러면 더 명확하고요.

○정병국 위원 이미 문화관광부장관도 문화유산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에 동의를 표시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단순히 정부 한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를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복지부동하는 모습이라고 보니까 일단은 관장이나 청장님이나 또는 장관도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하면 조속히 이 부분을 진척시켜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쪽에는 홍보를 한 셈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쳤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아니, 그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는……

○정병국 위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바로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덕수궁 석조전이 2005년도에 궁중유물전시관이 이전을 해 나감으로써 동관이 현재 비어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1차적으로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근대미술관으로 사용하게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기무사 터나 시내로 오게 되면 석조전 동관, 서관을 다 문화재청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대한제국기념실이 되든……

○정병국 위원 일단은……

○문화재청장 유홍준 일단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정병국 위원 확정을 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지금 문화재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을 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복원하는 데에도 장시간이 요구되는데 지금 복원해야 될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다시 미술관화한다면 복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장관과 청장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

문에, 그 당시에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전임들이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그렇게 충실하게 지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기관이 그런 계속성, 이것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시킨 다음에 관계기관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무튼 보수하는 데는 1년 걸립니다.

○정병국 위원 따라서 이것을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서울 문화공간 재배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다음은, 행정복합도시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했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했습니다. 지표조사는 마치고……

○정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했는데 전체 부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250만 평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나왔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이 250만 평이면 우리나라가 1년에 지표조사하는 것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실제로 저희가 시굴해야 되는 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굴 대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산으로는 10개 발굴기관이 2년 동안 하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10개 기관이 지금 논의가 되고……

○문화재청장 유홍준 30개 기관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 10개 기관이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큰 지역만 해도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이 자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알아보니까 행정도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사업은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건설청하고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 않고요. 저희 문화재청 직원이 여기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학예 연구관이요.

○정병국 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발굴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공기를 지연해 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마찰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굴과 시굴조사는 확실하게, 철저히 할 겁니다.

○정병국 위원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도권을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주관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원래 스케줄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문화재 발굴을 철저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문화재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소임인데요, 저희가 할 겁니다.

○정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올해 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변산반도, 태안해안,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네 개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을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또 내년까지 전체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사찰에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우상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산에 오르면서 자기는 문화재 보지도 않는데 돈을 냈다는 불평불만은 사라지는 획기적인 정책일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찰이 어쨌든 여기서 받은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일부, 물론 전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까라는 문화재 수리·보수비용이라든가에 쓰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들이 명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리산 가면서 등반하는 사람하고 화엄사 가는 사람하고 봤을 적에, 지금도 사찰을 본다고 했을 적에 가는 퍼센티지가 과연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질 것인가, 아마 제일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설악산의 신흥사의 경우가 타격을 받겠다는 생각이고 선암사나 송광사의 경우에도 그 쪽으로 통과를 해야지 가는 길이 직선으로 나고 등산로로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상호 위원** 지금 조계종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사찰 입구에다가 예를 들면 매표소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냐를 갖고서 내부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시다.

○**우상호 위원** 결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문화재 관람료 자체를 이 기회에 일률적으로 사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 됩니다.

○**우상호 위원** 사찰이 받을 데는 받고 안 받을 데는 안 받는 식으로?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우상호 위원** 그럴 경우에 사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던 관람료 자체가 감소하거나 폐지된다면 당장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수리비용을 국고로 하자 이런 주장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그 문제와 연동이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실제로 해인사의 경우나 다른 절들은 문화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는 사찰들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를 입장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화엄사의 경우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상호 위원** 물론 그런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입장료 수입은 적어지겠지만, 조계종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동안의 문화재 관람료 집행 내역을,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것이 제대로 문화재 관리·보수에 안 쓰인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시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30%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국가가 물론 일부 보조하고 지원을 하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찰 입장료 형태로 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게 변화를 시킬 것 같으면 그동안 30% 쓰던 것조차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계종 쪽하고 만나서, 징수 방식도 사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수거하던 것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관련된 사찰이나 종교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을 때 결국 그것이 문화재의 수리·보수 비용에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하고, 문화재 도난이나 유실, 화재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보험 가입을 스님들이 거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어떤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에 맞추어서 어쨌든 문화재관리 주무부서로서 각 사찰하고 대화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까 이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시다마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유물조사인데, 유물이 발견된 곳이 팽성읍뿐만 아니라 서탄면 일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팽성읍 일대의 세 군데만 발굴조사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시다. 대한민국 땅의 1만 평 정

도면 문화재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가치와 시굴가치가 있는 곳인가를 판정해서, 팽성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좀 다른 차원인데요. 공주·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몇 번 행복도시 들어서기 전에 그쪽 문화재 발굴·지표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조사를 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우상호 위원** 어느 정도의 유물이 나왔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지표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유물이 나온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청동기시대 유적부터 고려시대 유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곳 262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170개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굴조사라고 하는 것은, 발굴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시굴조사를 해 보면 발굴지역 숫자는, 또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발굴 면적이 나오면 아마 대대적인 발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0개 기관이 한 2년 내지 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행복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혹시 예상치 못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어서 일정에 차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그때는 ‘별로 중요한 것이 나올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청장님을 믿지만 혹시 거기서 의외의……

**○문화재청장 유홍준** 워낙 면적이 넓어서 한두 군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 배치를 바꿔 가지고……

**○우상호 위원** 그건 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계획을 바꾸는 것,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강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실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학예연구관을 채용할 것을

권유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문화재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그 기능을 보장해 주는 방법, 그것을 저희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두 번째는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문화재의 위치를 GPS 시스템, 네비게이션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주 5일제를 맞이해서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그쪽 정보에 수립되도록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협의가 아니고…… 그거하는 데가 다섯 개 회사가 있더군요. 거기에다가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하여튼 한 군데에서는 자기네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서울역의 구청사를 예술전용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에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돌려 달라고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가고 국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곳으로,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이 공사가 되어서 정부 소유물을 국가기관으로 넘기면 당연히 문화재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쓰는 줄 알고 이미 시설투자를 해 버린 겁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사적 157호 원구단, 그것은 관광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관광공사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사실 철도공사로 볼 때는 100여 년 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갑자기 문화재청으로 주라고 하면 주기 싫겠지

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원구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조선폰텔하고 반도호텔 사이에 있어서 관광공사 소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선폰텔·반도호텔이라는 사유재산이 공사 것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를 다 국가가 갖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서울역 경우하고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쟁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해결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가질 권한이 없는 건데 이미 돈을 투입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겁니다.

○김충환 위원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로또복권기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잘 사용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와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원의 통보를 받으면, 아직 안 받았지만 받으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광화문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말하자면 철거비와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50억입니다.

○김충환 위원 전체 총 비용이…… 광화문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640억입니다.

○김충환 위원 640억……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640억이면, 그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요, 그건 경복궁 복원 20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광화문이나 새로 짓는 광화문이나 다 현대에 짓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대한문 같은 경우도 앞에 있다가 뒤로 밀었다, 당겼다 왔다 하는데 15m를 꼭 옮겨 짓기 위해서 640억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시멘트 건물…… 68년에 지을 때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과거에 목조건물이 다 불타기 때문에 앞으로 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최신공법으로 그걸 지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30년 만에 그걸 다 철거하고 640억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하고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유적, 잘 조사해서 가지고 유적도 잘 관리하고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면 암사동 선사유적지, 전시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대형박물관에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판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토 유물을……

○김충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물건도 전시가 되어 있고……

○문화재청장 유홍준 빗살무늬토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그것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대외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3억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약 23억 있어야 되는데 그 20억을 꼭 좀 확보해야 되는 처지라고 하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금년에 7억 했는데요.

○**김충환 위원** 저는 3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 다만……

○**문화재청장 유홍준** 7억을 해서, 여기에 매칭 펀드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10억 확보가……

○**김충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가내시 할 적에 3억이었고요. 실제적으로는 7억 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그리고 제가 꼭 한번 여쭙어 보고 싶은 건데, 월남에 갔더니 거기에 이씨 왕조를 모신 큰 궁, 옛날 궁 유적이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월남 이씨……

○**김충환 위원** 월남 이씨, 1200년도의 유적이 다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경북 봉화에 가면 화산 이씨 집성촌이 있고, 거기에 충효당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거기 월남 사람들이 1년에 여러 차례 오고 또 이쪽 사람들도 월남에 가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볼 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대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서로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될 때 문화유산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청장 유홍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 모르고 있었는데요.

○**김충환 위원** 문화재청에서 한번 점검해서 가지고, 그러한 유적이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문화재청장 유홍준** 마침 제가 3월 6일부터 일

주일간 한·베트남 문화재 협약체결을 하러 베트남에 갑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다 하셨나요?

○**김충환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심재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요구하시기 전에 잠깐……

아까 손봉숙 위원하고 정종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도 지난 국감 때 양동 민속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동 민속마을 앞 교각 10m 위에 철도가 지나가게 된 데 대해서 불허 공문을 냈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게는 절대 못 하고요. 다시 수정안을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만들 적에……

위낙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터널을 뚫고 가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미경** 그 안도 제시를 해 봤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위원장 이미경** 터널로 통과하라는 것일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받아 주기 힘들다는 것이 철도관리공단 측의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앞에 그렇게 엄청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북악산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동물이나 식물 등 식생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말씀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

는 자연이 얼마만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가 60년이고, 여기가 37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방적으로 다 개방할 수가 없고, 팔각정으로 돌아오는 길이나 이쪽의 탐방로만 개방을 하고 옆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식생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식생 실태조사, 그다음에 보호, 그 전체적인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재윤 위원, 박형준 위원, 손봉숙 위원, 강혜숙 위원, 박찬숙 위원, 천영세 위원, 윤원호 위원, 심재철 위원, 이재오 위원, 김재홍 위원, 정청래 위원, 이광철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 질의·답변 내용을 오늘 회의록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종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얘기여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16일날이 선거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생체협은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부터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을 받는, 일종의 피감독기관이기도 하고 기금이랄지 국민들의 돈이 들어감으로써 국회의 예산점검도 받는 산하단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신 안민석 위원님께서 본인의 체육 부분에 대한 소신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생체협회장 선거에 나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상임위 산하단체의 장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웬지 좀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재경위 같은 데서도 업무 관련 주식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체협에 관한 업무를 따질 때, 그렇다면 여기서 따졌다가 또 어떻게…… 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셔서 산하단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만 아니어도 좀 덜하겠는데 직접 소속 산하단체의 장으로 취임한다는 게 동료 위원들을 아주 난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안민석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민석 위원이 국회에 들어오신 동기 또 들어와서 일관되게 진행해 온 것이 체육단체의 통합 및 구조개혁에 관한 사안인데……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육단체 통폐합 논의가 안민석 위원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서 바꿔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만약 그 단체장에 당선이 되시게 되면 상임위를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진의는 그렇게라도, 본인도 그게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만 워낙 그 문제를 절박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24인)

강 혜 숙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충 환
노 웅 래	민 병 두	박 찬 숙	박 형 준
손 봉 숙	심 재 철	안 민 석	우 상 호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미 경	이 재 오	이 재 응	정 병 국	신 문 유 통 원 장	강	기	석
정 종 복	정 청 래	천 영 세	최 구 식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김	종	민
○출석 전문위원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	재	철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최	경	식
전 문 위 원		최	민	서울올림픽기념공단장	박	재	호
○정부측 참석자				이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사			
장	관	정	동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최	현	열
정책홍보관리실장		박	양	영사	김	혜	준
직무대리				문화진흥위			
총무실장		이	보	국			
문화정책국장		이	성				
예술국장		위	옥				
문화미디어국장		백					
관광국장		김					
체육국장		조	현				
관광레저도시추진		조	창				
기획단장							
문화중심도시조성		이	영				
추진기획단장							
추진본부장							
예술원사무국장		송	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건				
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이	건				
국립국어원장		이	상				
국립중앙도서관장		김	태				
국립중앙극장장		신	선				
국립현대미술관장		김	윤				
국립국악원장		김	철				
국립민속박물관장		김	홍				
문 화 재 청							
청	장	유	홍				
차	장	이	승				
정책홍보관리관		송	인				
문화재정책국장		김	홍				
문화유산국장		김	창				
국립문화재		김	봉				
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이	종				
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소	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	동				
이사장							
○기타 참석자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	병				
영상물등급위원장		이	경				
한국문화콘텐츠		서	병				
진흥원장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	종				